

BIFC 금융강좌

- 2016. 7. 13 (수) -

글로벌 금융 · 경제동향



백 충 기

BNK 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

- 차 례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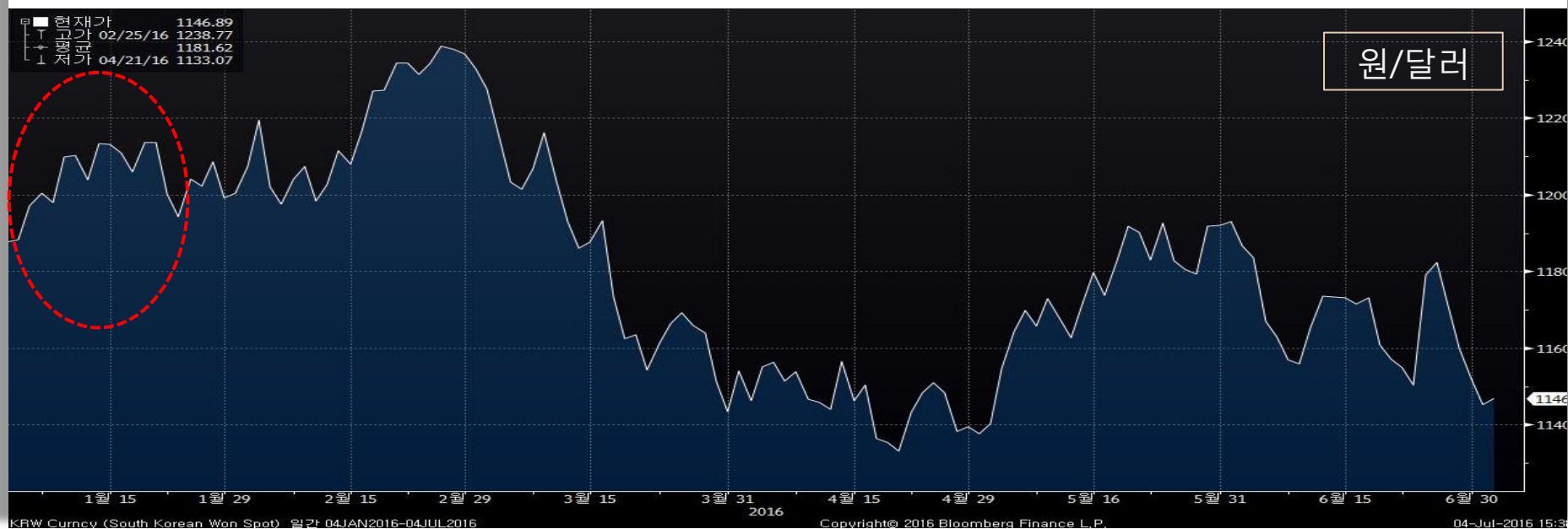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

세계경제

한국경제

동남권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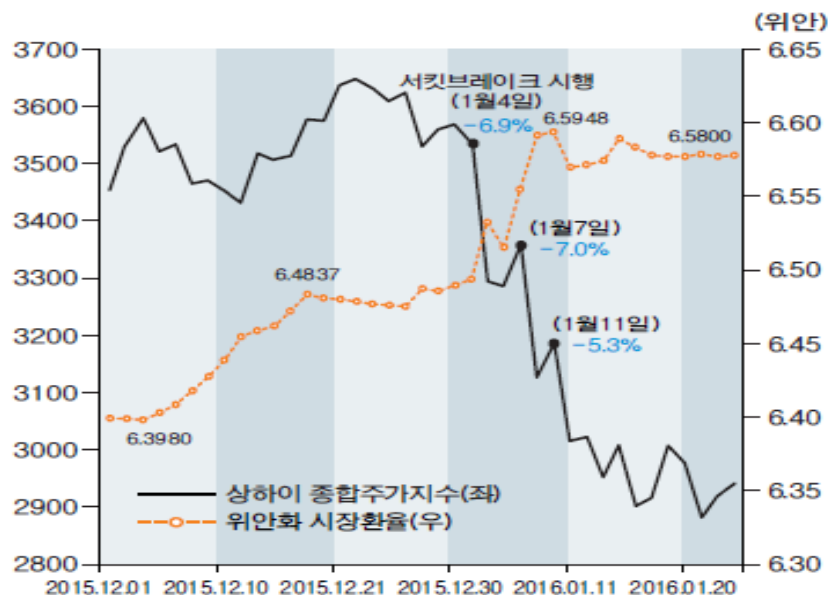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



1 China Ris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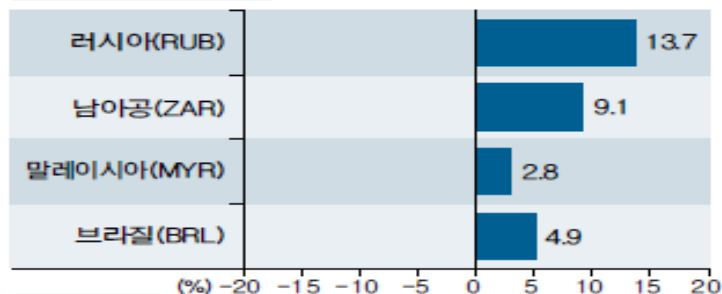
■ 2016년의 시작, 중국 금융시장 shock와 함께

- ▶ 상하이 종합지수 : 1월중 25% 하락, 위안화 환율 : 6.5948위안(5년만 최저치)
- ▶ 선진국 주가 급락, 신흥국 환율급등
- ▶ 작년 미달러 강세기간에도 큰 변동없던 원화환율도 3% 이상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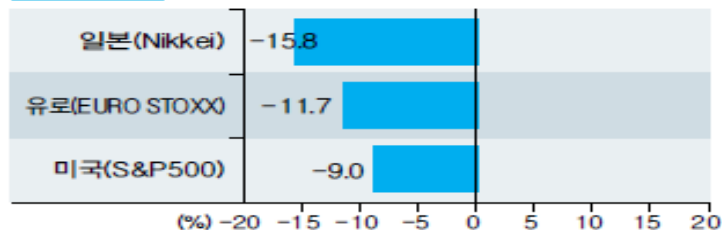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

미달러 대비 환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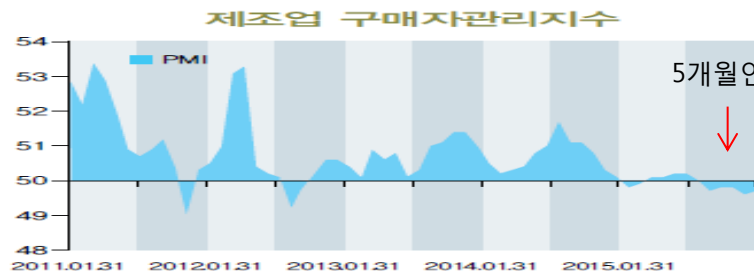
주가지수



주 : 전년말대비 1월중 최대변동치 기준
자료 : Bloomberg

1 China Ris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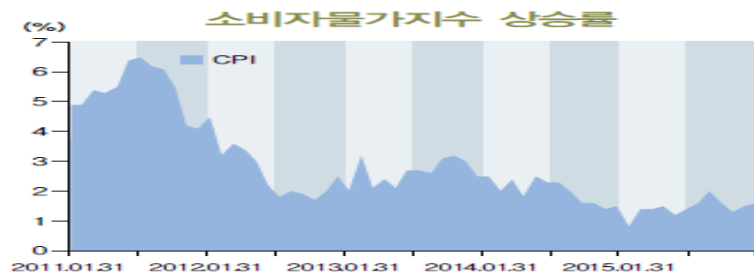
■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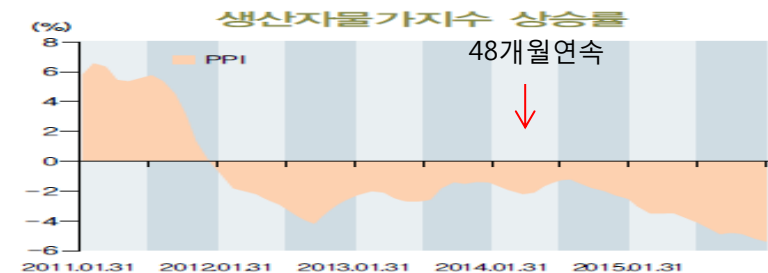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국국가통계국



주 : 전년동월대비
자료 : 중국국가통계국



주 : 전년동월대비
자료 : 중국국가통계국



주 : 전년동월대비
자료 : 중국국가통계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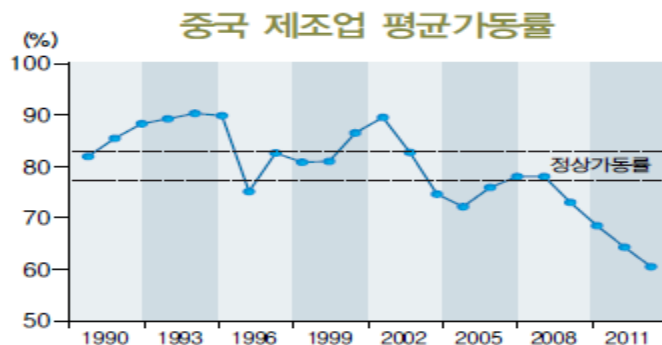
1 China Risk

■ 구조적 불안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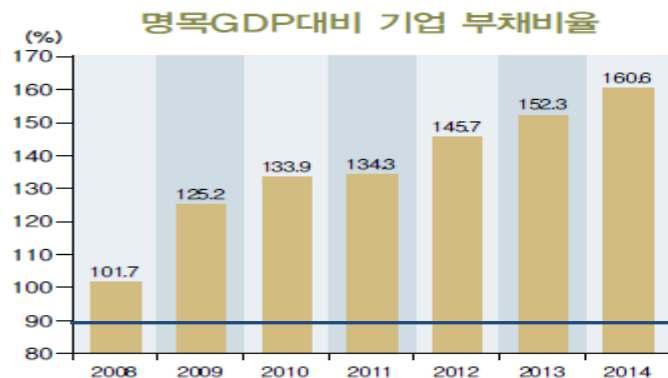
① 기업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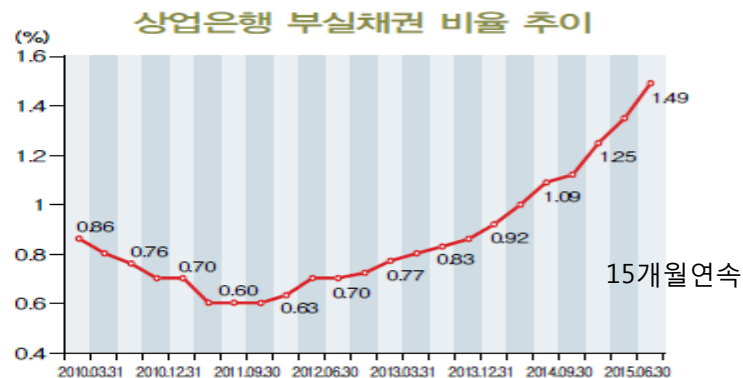
주 : 위안환(명목가격)기준, 연평균
자료 : 중국국가통계국



자료 : IMF Article IV-china(2012)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1 China Ris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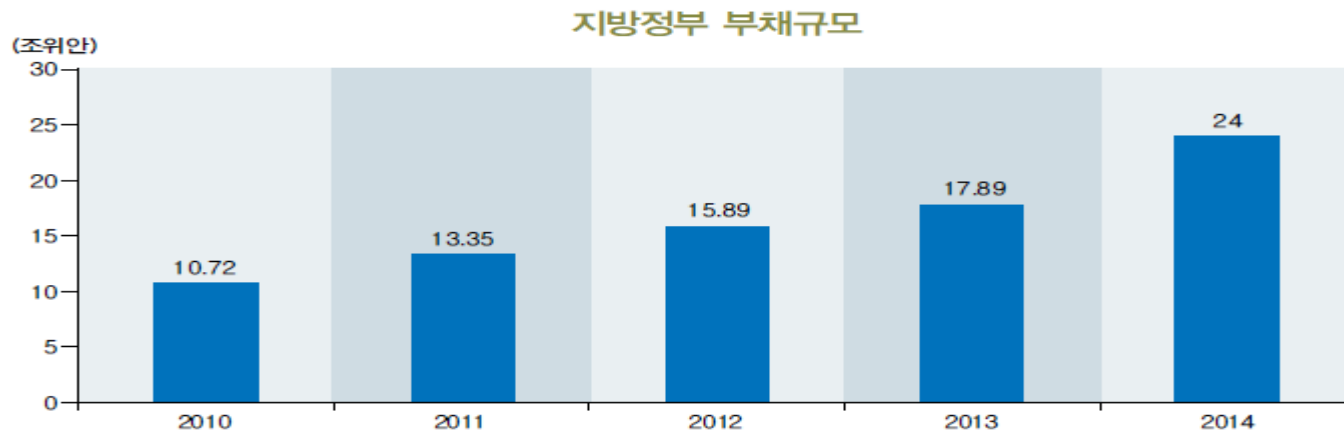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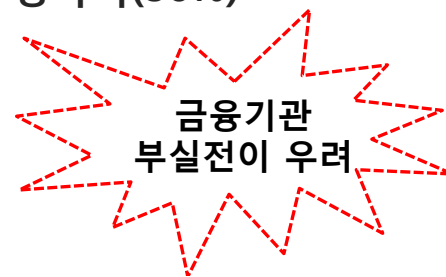
■ 구조적 불안요인

② 지방재정

▶ GRDP(명목) 대비 지방부채(37.7%) : 구이저우(90%), 충칭·윈난·칭하이(50%)

* 뉴욕, 켄터키, 로드아일랜드 : 20% 초중반

▶ 토지소유권 판매수입 2015년 이후 급감



주 : 2011년은 추정치
자료 : 중국국가통계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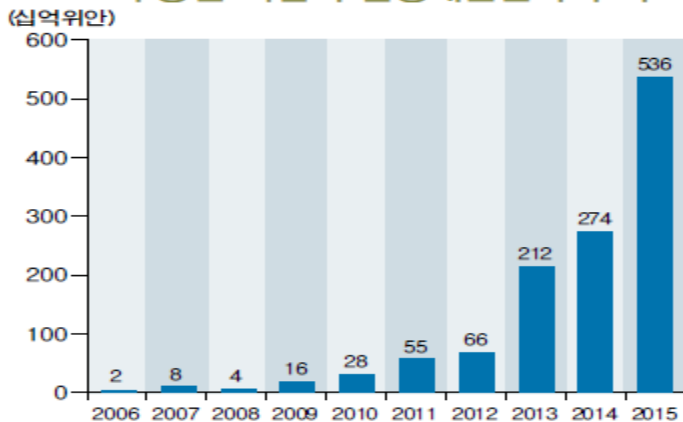
1 China Risk

■ 구조적 불안요인

③ 부동산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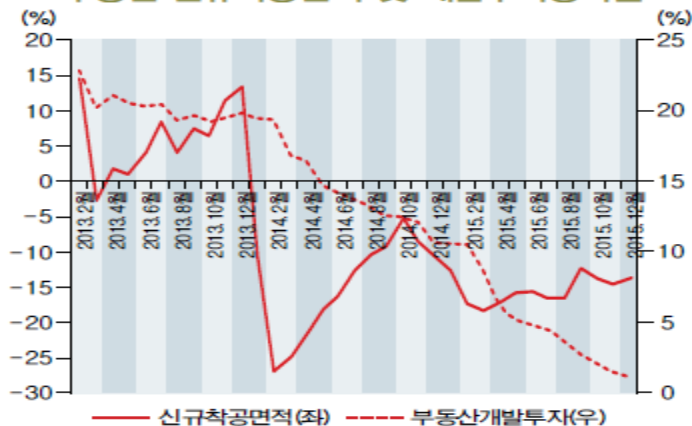
▶ 2013년 4/4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→부동산 관련기업 채권발행 급증

부동산 기업의 발행채권잔액 추이



주 : 전년동월대비
자료 : Bloomberg

부동산 신규착공면적 및 개발투자증가율



자료 : Bloomberg, 중국국가통계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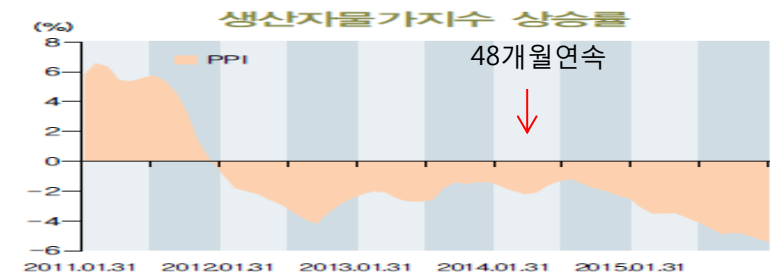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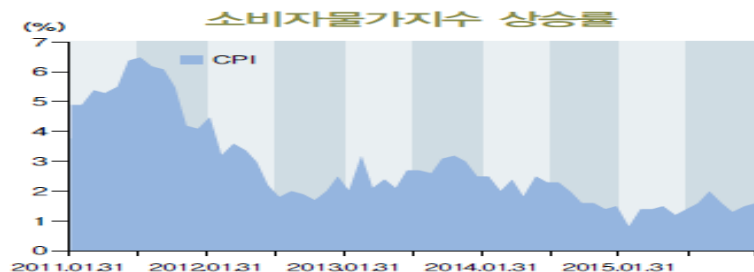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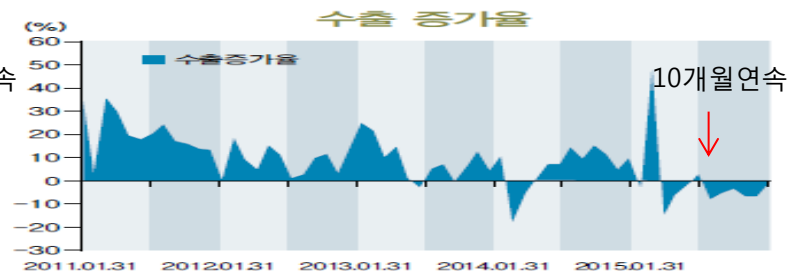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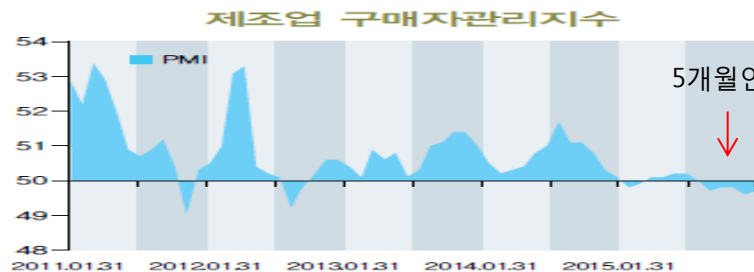
1 China Ris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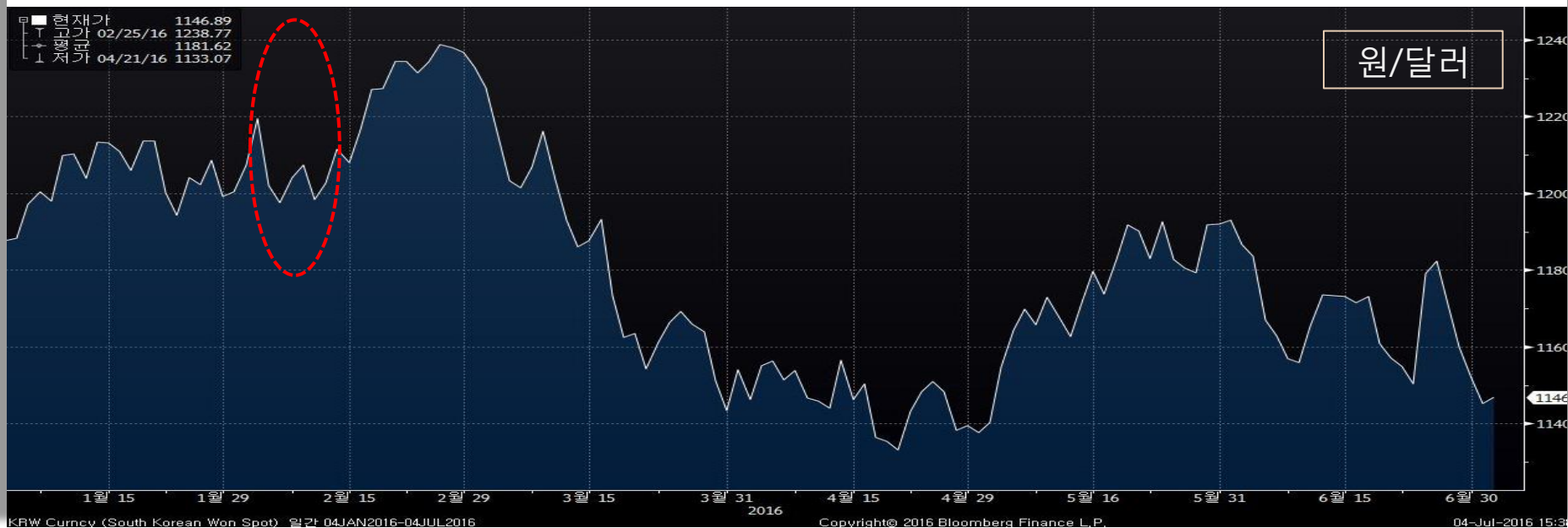
■ 전세계 금융시장 요동친 이유?

▶ 믿고 있던 구원투수의 부진

- 2001~07년중 중국 명목GDP 증가분(A), 세계 명목GDP증가분(B) A/B : 9.5%
- 2011~15년중 중국 명목GDP 증가분(A), 세계 명목GDP증가분(B) A/B : 66%
- 2010~14년중 원유소비량 증가분 38.6%, 철광석·니켈·알루미늄 생산량 50~60%, 자동차판매대수 증가분 40.6%

▶ 대주주 지분매각 금지 해제,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





2 Downward Risk



스웨덴



덴마크



유로존



스위스



일본



■ 마이너스 금리 인하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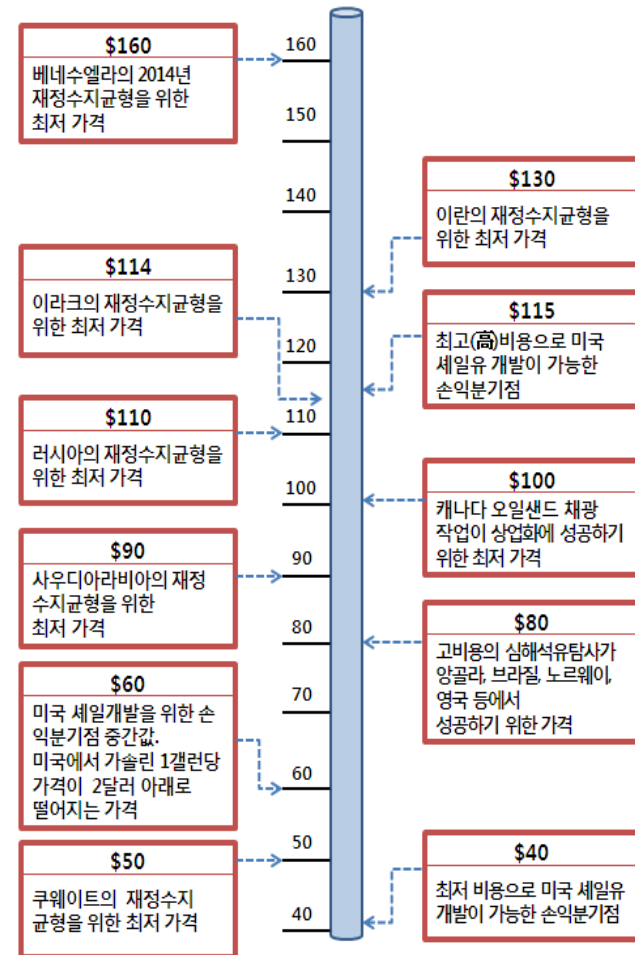
- ▶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적용 → 은행은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하
- ▶ 예금자의 소비지출 확대
- ▶ 외국자본 유입 →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유도 → 수출경쟁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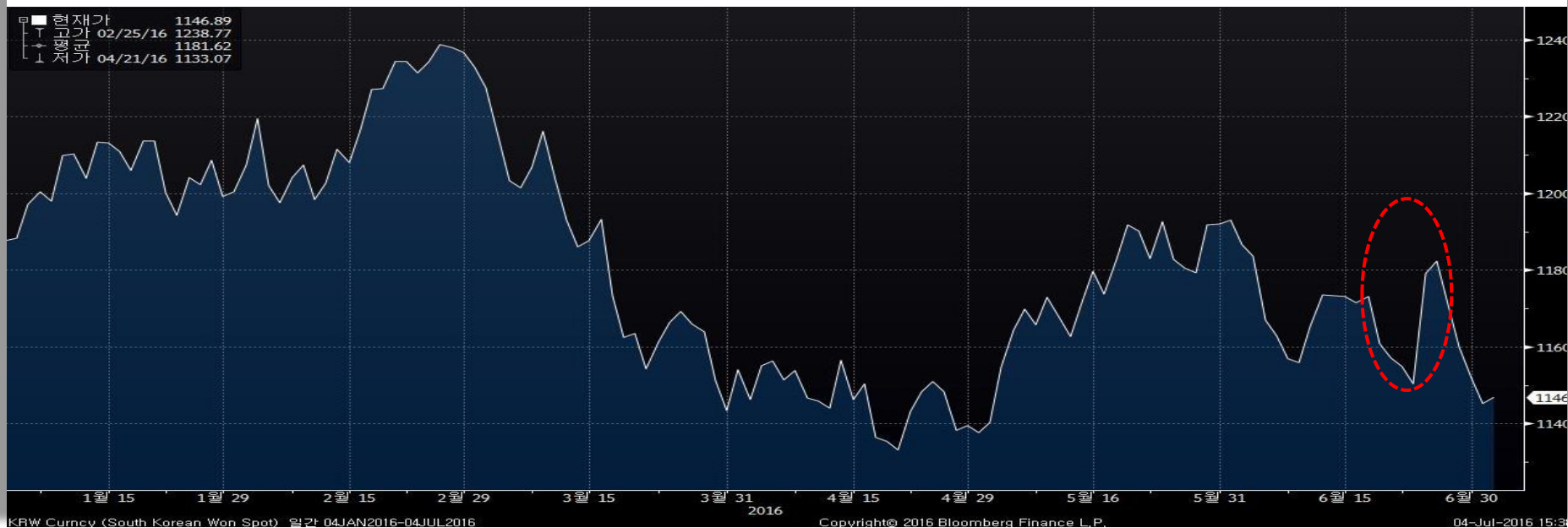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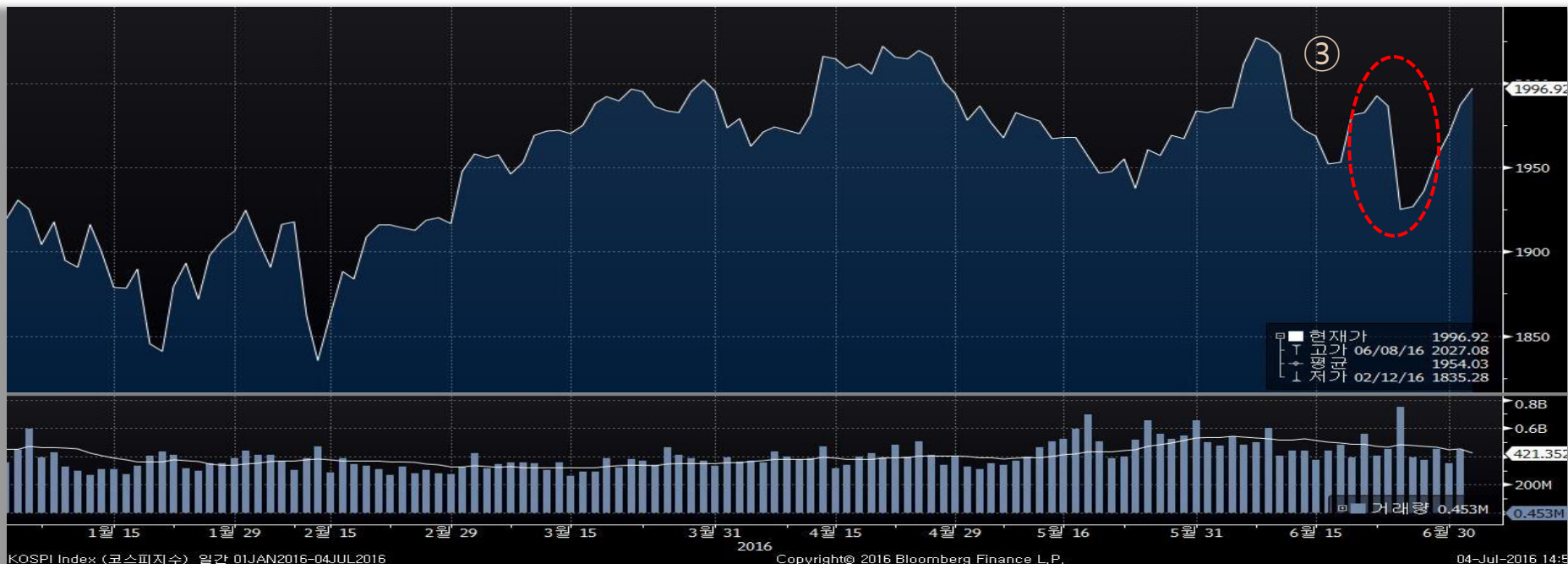
■ 실제 효과는?

- ▶ 현상황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
- ▶ 고객 이탈 우려로 금리인하 부분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여 은행 수익성 악화

※ 국제유가

-1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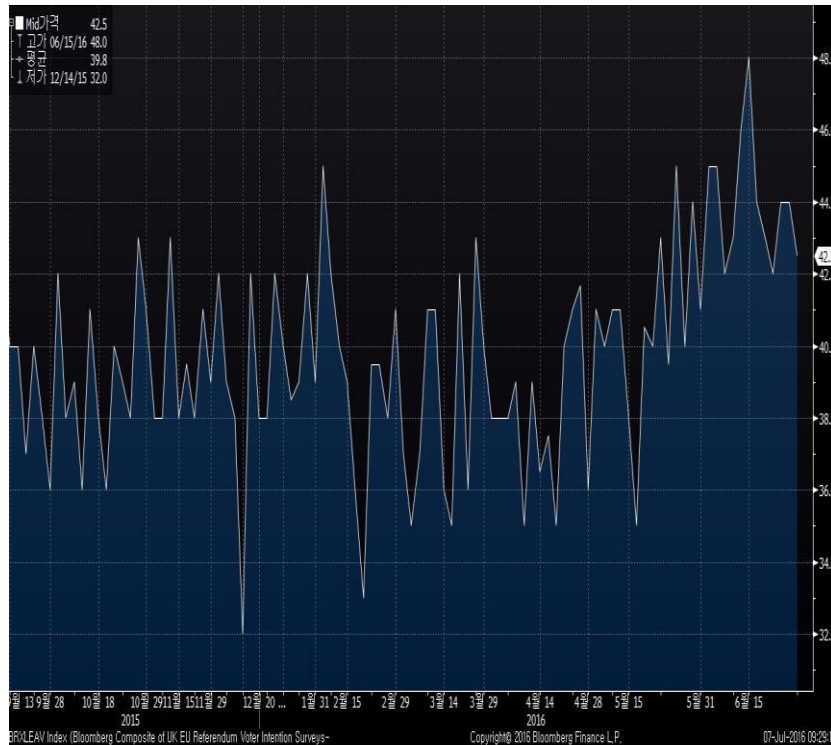




3 BREXIT Ris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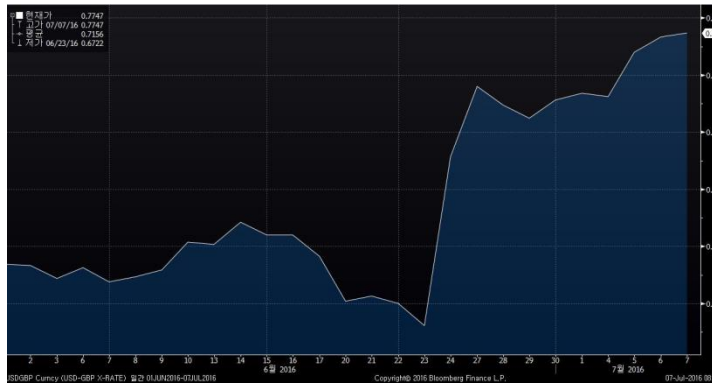
2015.9.1~2016.6.22
EU탈퇴 : 39.8

6.23 투표결과
EU탈퇴 : 51.9
EU잔류 : 48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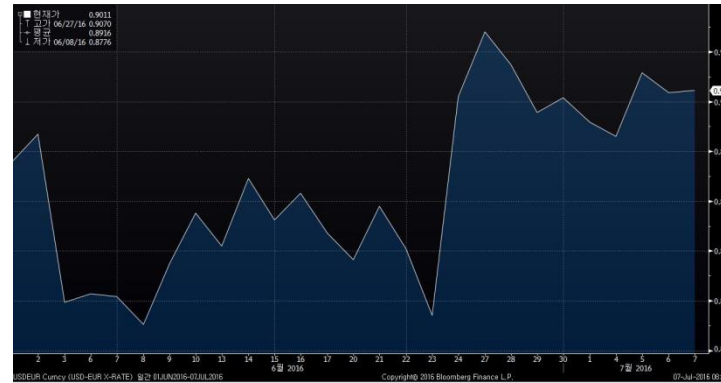


3 BREXIT Ris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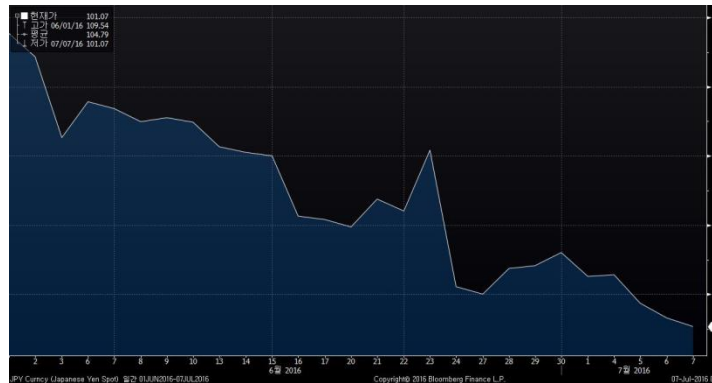
GBP/US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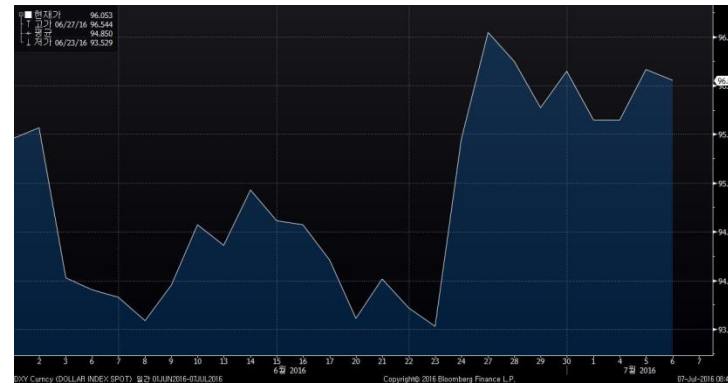
EUR/USD



JPY/USD



Dollar Index



3 BREXIT Risk

Britain, Post-Brexit

The governor of the Bank of England says "the U.K. has entered a period of uncertainty and significant economic adjustment."



Mark Carney

NEXT Britain?



BREXIT



FLAGS OF THE COMMONWEALTH OF NATIO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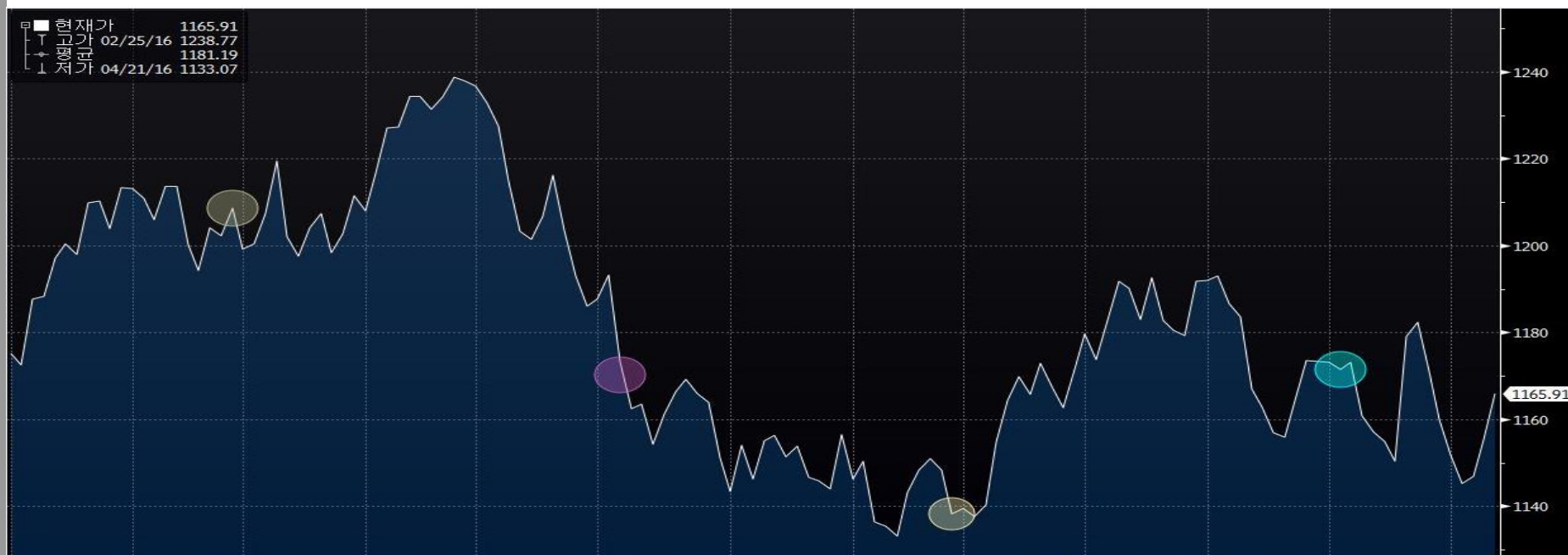


아시아·태평양 국가별 브렉시트 위험노출 순위(Brexit Risk Ranking)

구분		외화 보유액	자본이동	단기경제성 장률	대EU 수출비중	공공부채	합계 (위험정도)
1	싱가포르	12	13	9	12	13	59
2	베트남	8	9	12	14	11	54
3	홍콩	11	14	14	13	1	53
4	말레이시아	7	10	11	11	10	49
5	중국	2	11	10	8	9	40
6	한국	5	12	6	9	5	37
7	인도	6	6	4	6	12	34
8	태국	3	8	5	10	8	34
9	뉴질랜드	13	1	8	5	3	30
10	호주	14	5	3	1	6	29
11	일본	9	2	1	3	14	29
12	대만	1	7	13	2	4	27
13	인도네시아	10	3	7	4	2	26
14	필리핀	4	4	2	7	7	24

주 : 숫자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의미

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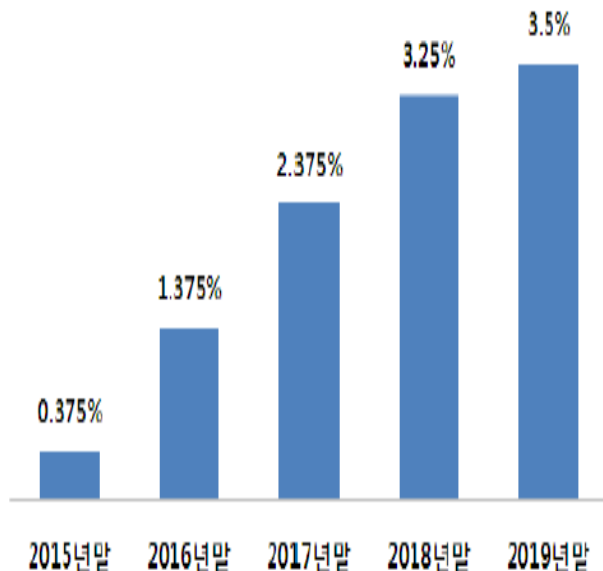


■ 2015년 12월 16일 기준금리 0.25~0.5%로 인상

▶ 2008.12월 이후 첫 인상

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의 2016년 미국금리 인상속도 전망

연준의 기준금리 추정(중간값)



기관	금리인상여부 전망					2016년중 인상폭	GDP 전망 (2016)	CPI 전망 (2016, 평균)
	2015	2016						
	12월	1Q	2Q	3Q	4Q			
JP Morgan	○	○	○	○	○	100	2.3	1.7
Goldman Sachs	○	○	○	○	○	100	2.3	1.8
Jefferies	○	○	○	○	○	100	3.2	1.4
RBC	○	○	○	○	○	100	2.9	2.0
BNP Paribas	○	○	○	○		75	1.9	1.8
TD Bank	○	○	○	○		75	2.5	1.9
Credit Suisse	○	○	○		○	75	2.6	1.4
Societe Generale	○	○	○		○	75	2.7	1.6
Barclays	○	○		○	○	75	2.5	1.3
Bank of America ML	○		○	○	○	75	2.6	1.8
Morgan Stanley	○		○	○	○	75	1.9	1.5
Wells Fargo	○		○	○	○	75	2.5	1.8
Credit Agricole	○		○	○	○	75	2.6	1.5
Deutsche Bank	○	○	○			75	2.7	2.0
Citi	○		○		○	50	2.5	1.6
HSBC	○		○		○	50	2.4	1.6
Nomura	○		○		○	50	2.3	1.7
Mizuho			○		○	50	2.3	1.5
계	17개	10개	17개	11개	15개	73.6 ¹⁾	2.5 ¹⁾	1.7 ¹⁾

3월 15~16일 FOMC 회의 결과

- 금리 동결
- 금년중 금리인상 횟수 2회 예상 (2015.12월 4회)
-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

□ 금융시장 상황(뉴욕 오후 6시 기준)

- 주가 : 다우 0.43% 상승, S&P500 0.58% 상승, EURO STOXX 0.17% 하락
- 10년물 국채 : 1.9699 → 1.9081
- 달러/유로 : 1.1109 → 1.1213
- 엔/달러 : 113.18 → 112.77
- 헤알화/달러 : 3.7668 → 3.7425
- 원화 NDF(1개월) : 1196.75 → 1180.50

4월 26~27일 FOMC 회의 결과

- 금리 동결
- 인상기조 지속, 시기 판단유보
- **인플레이션 지표와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을 더욱 신중히 모니터링 하겠다**

□ 금융시장 상황(뉴욕 오후 6시 기준)

- 주가 : 다우 0.28%, S&P 0.16%, EURO STOXX 0.29% 상승
- 10년물 국채(미국) : 1.9270 → 1.8508%
- 달러/유로 : 1.1322 → 1.1327
- 엔/달러 : 111.46 → 111.50
- 원화 NDF(1개월) : 1149.21 → 1150.80

6월 14~15일 FOMC 회의 결과

- 금리 동결
- 고용시장 개선세 둔화, BREXIT
- HINT 없었으나 금리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
- * 17년(1.875%→1.625%)

□ 금융시장 상황(뉴욕 오후 6시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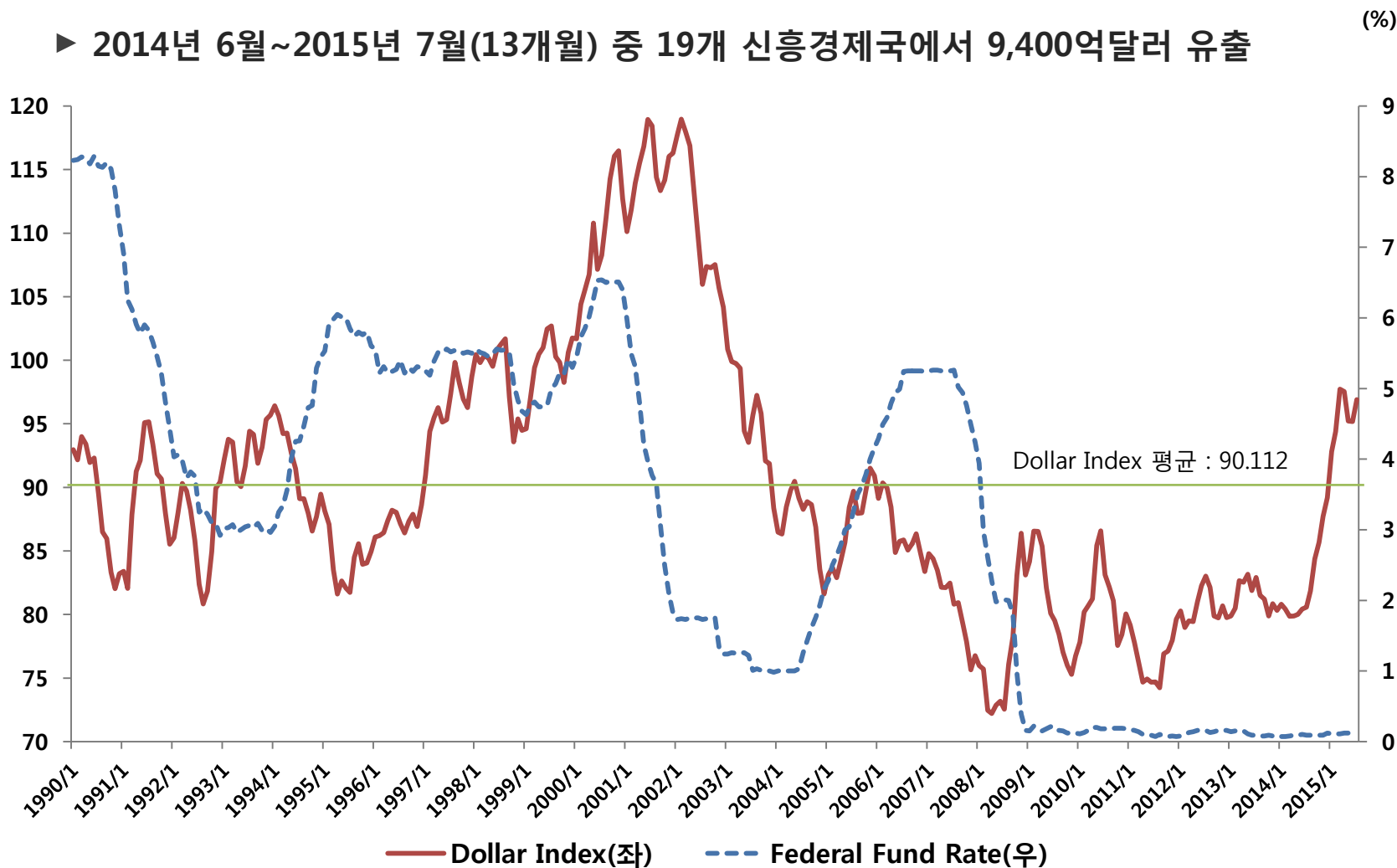
- 주가 : 다우 0.20% 하락, S&P500 0.18% 하락, EURO STOXX 1.18% 상승
- 10년물 국채(미국) : 1.614% → 1.572%
- 달러/유로 : 1.1260 → 1.1263
- 엔/달러 : 106.01 → 105.89
- 원화 NDF(1개월) : 1,177.0 → 1,170.2

※ 미국 금리와 달러가치

-20-

■ 금리 인상은 달러강세 요인

▶ 2014년 6월~2015년 7월(13개월) 중 19개 신흥경제국에서 9,400억달러 유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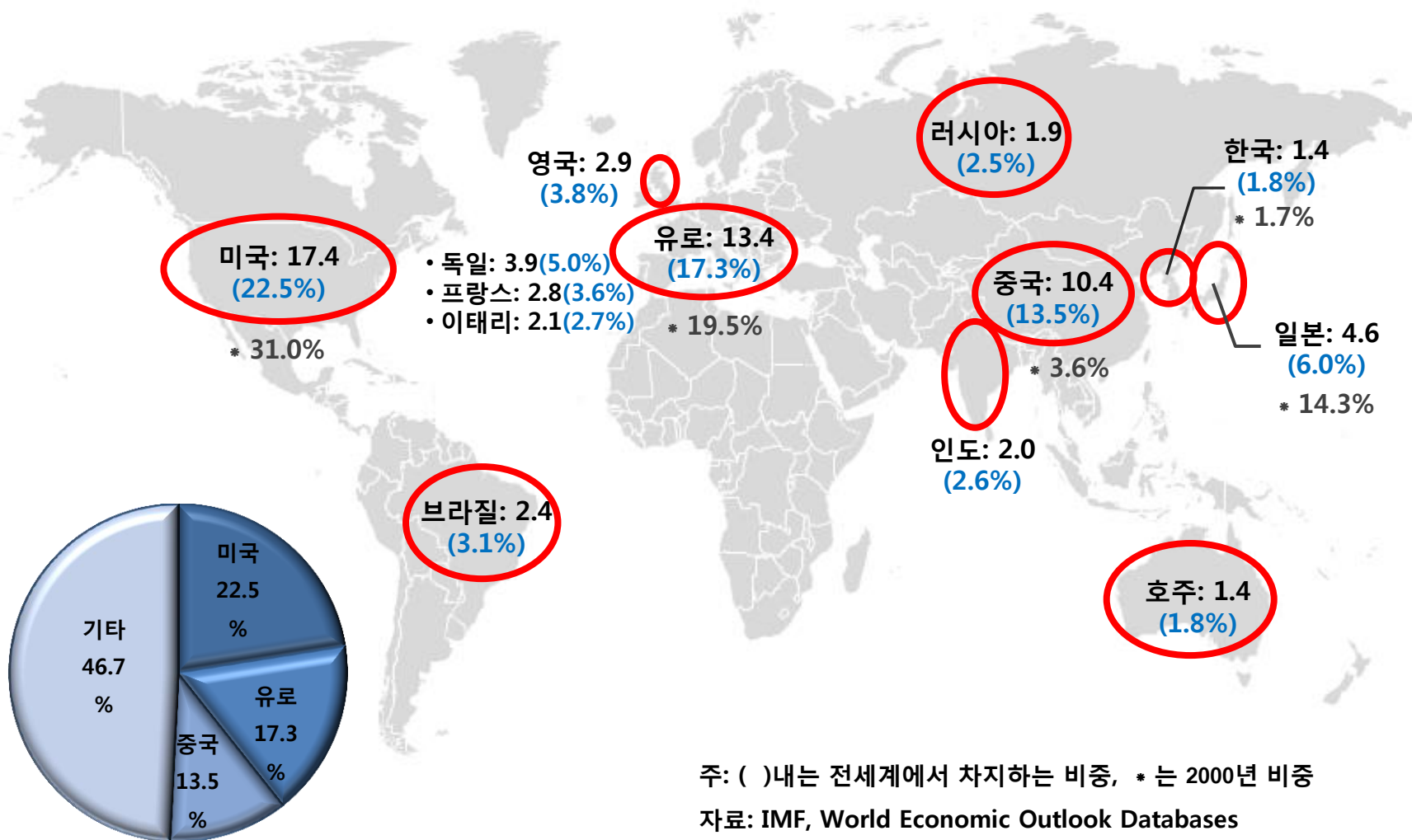


세 계 경 제

1 주요 국가별 경제 규모

-1-

전세계 GDP: 77.3조달러(2014년)



2 세계경제 위기 진행형

-2-



2008.10.4



2009.03.14



2011.7.16



2012.05.1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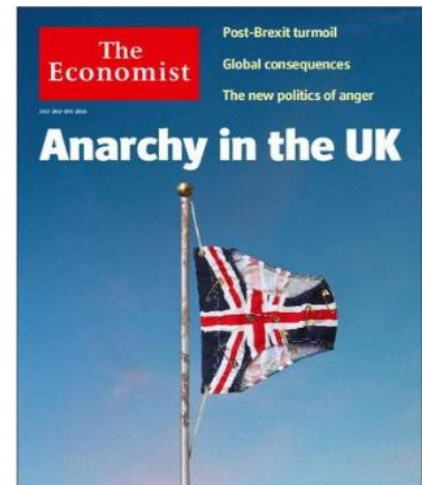
2014.2.1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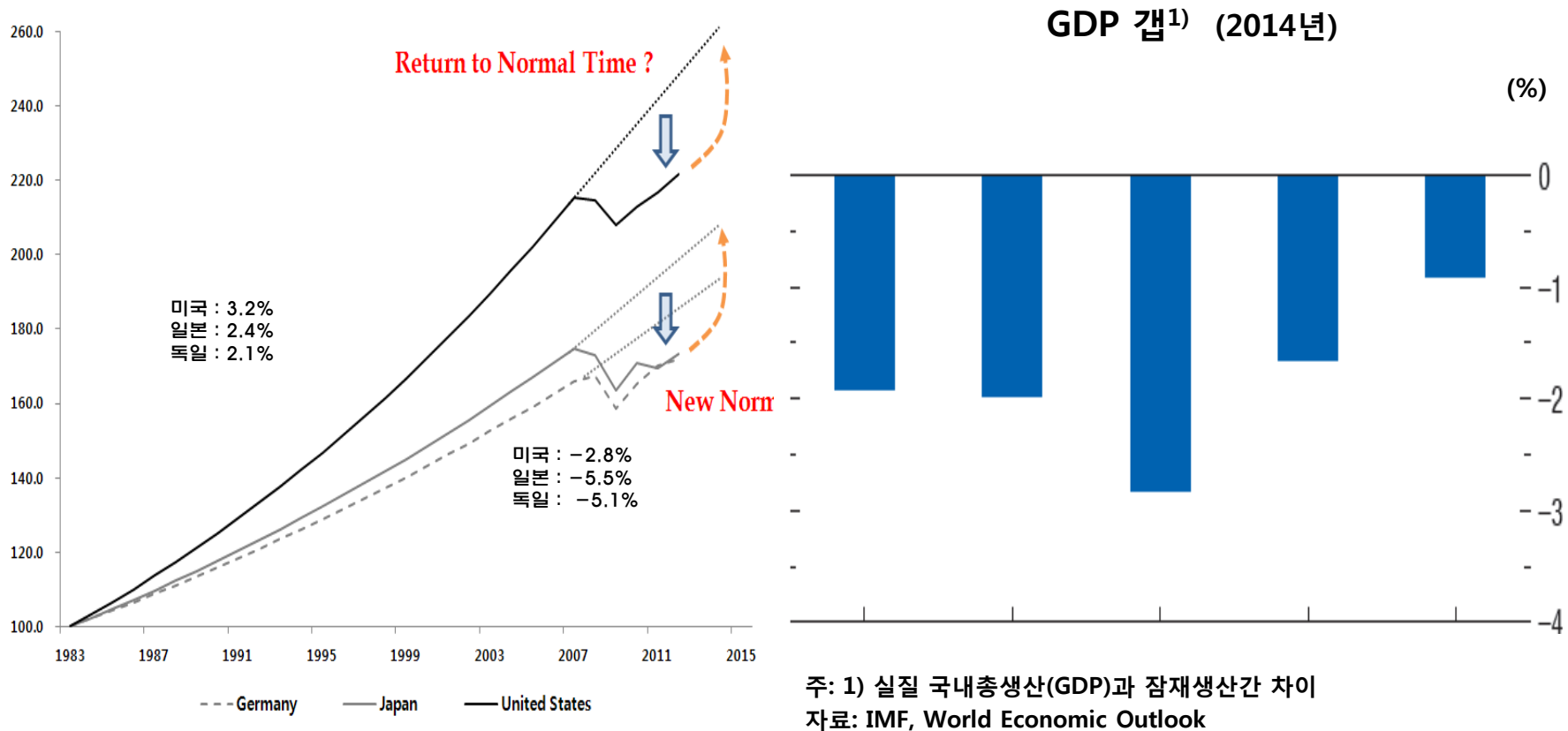
2015.2.14



2015.8.29



2016.07.02



▶ 가계자산 가치 폭락이 주요 원인

* 2007~2009년 ¼분기 중 미국 가계의 富가 17조 달러 증발
 (주택가격 하락 5.6조 달러, 금융자산가격 하락 11.4조 달러)

** 2009년초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6년 고점대비 32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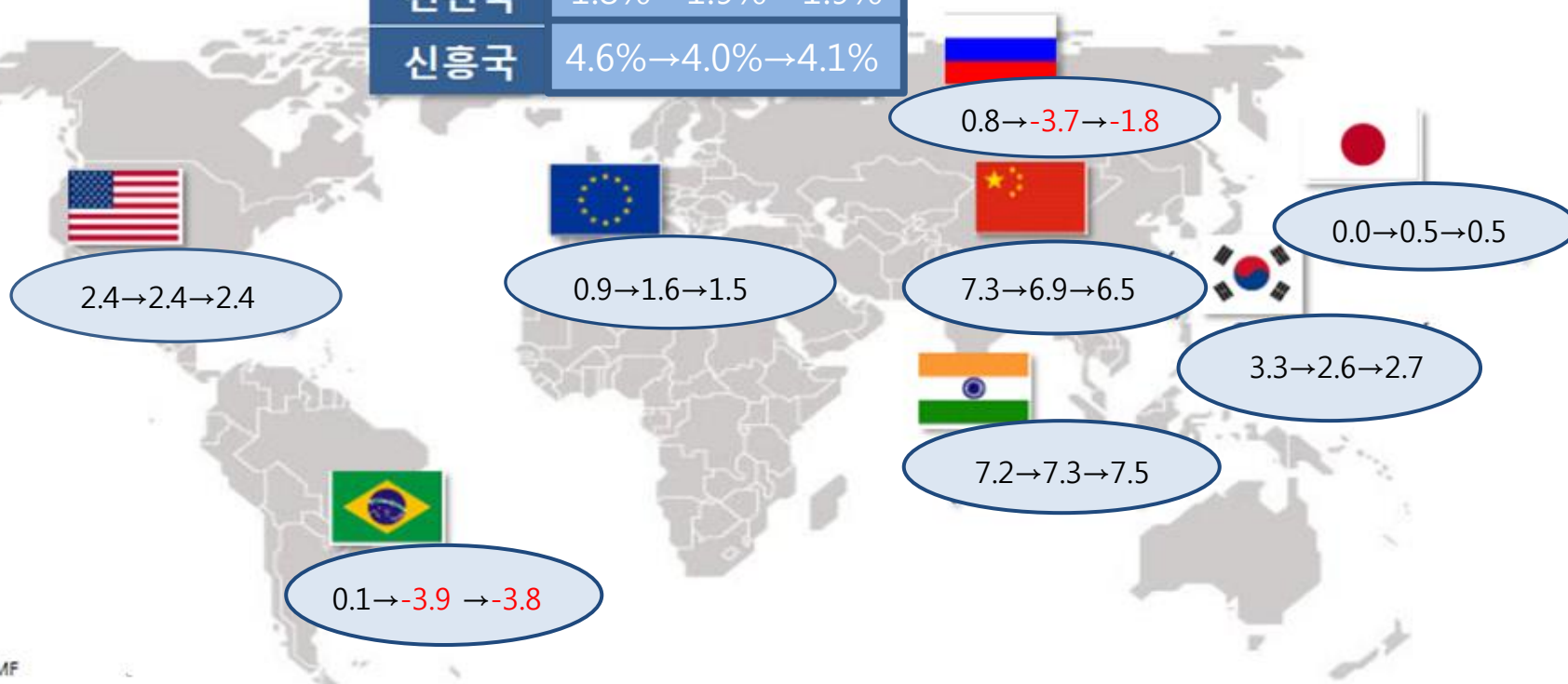
4 지역별 경제성장률

-3-

■ '10년 5%대 → '11년 4%대 → '12년~'15년 3%대

*2014년→2015년→2016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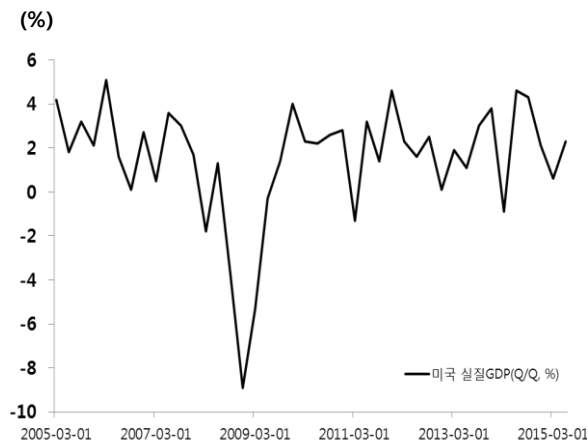
세 계	3.4%→3.1%→3.2%
선진국	1.8%→1.9%→1.9%
신흥국	4.6%→4.0%→4.1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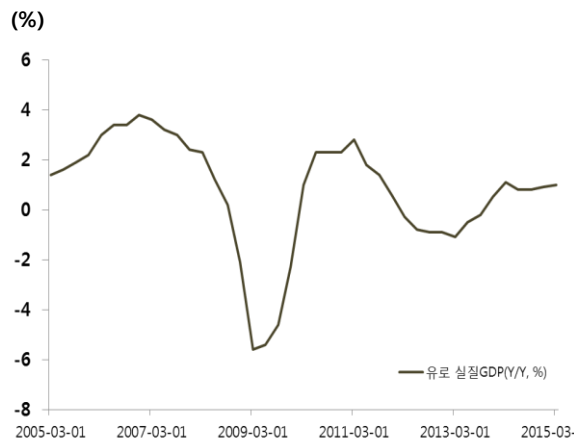
*자료 : IMF

5 미국, 유로, 중국 성장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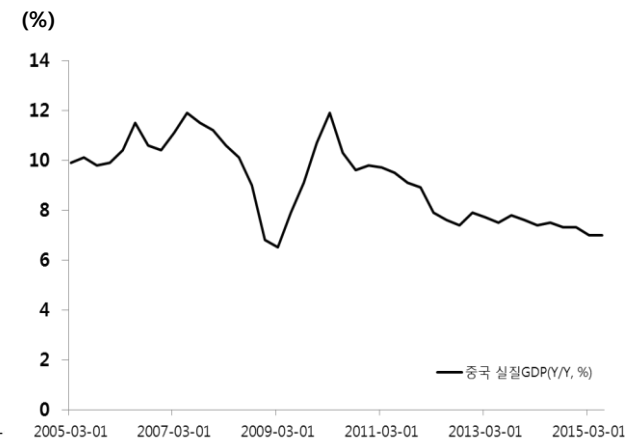
미국



유로



중국



주 : 실질GDP(전년분기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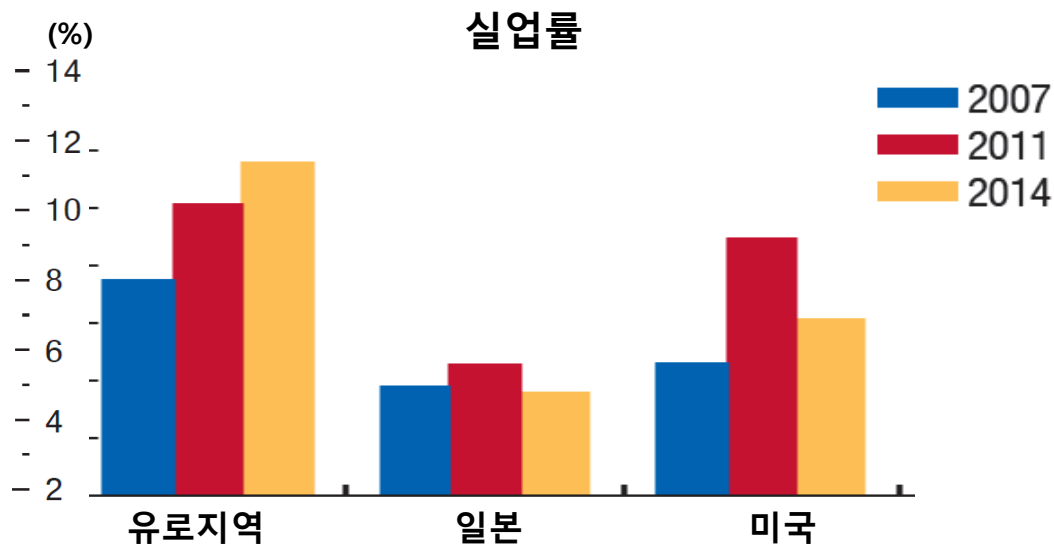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제금융센터

■ 실업률 급증

- ▶ 미국 고용감소: 2008년 3.6백만명, 2009년 4.7백만명

■ 청년실업률(15~24세, 2014년, OECD Employment Outlook 2015)

- ▶ 미국 13.4%, 독일 7.8%, 프랑스 23.2%, 이태리 42.7%, 스페인 53.2%, 그리스 52.4%, OECD 평균 15.0% * **한국 10.0%**

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

■ 국제 원자재 가격 :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

- ▶ 원유(Brent) : 46.8\$/bbl* (최고 : 2008.7월, 144.5 \$/bbl) : 최고가 대비 67.6% 하락
- ▶ 구리 : 212.25\$/lb (최고 : 2011.2월, 462.85\$/lb) : 최고가 대비 54.1% 하락
- ▶ 금 : 1,135.6\$/온스* (최고 : 2011.9월, 1,899.0 \$/온스) : 최고가 대비 39.9% 하락

* 2016. 7. 8 기준

원자재 가격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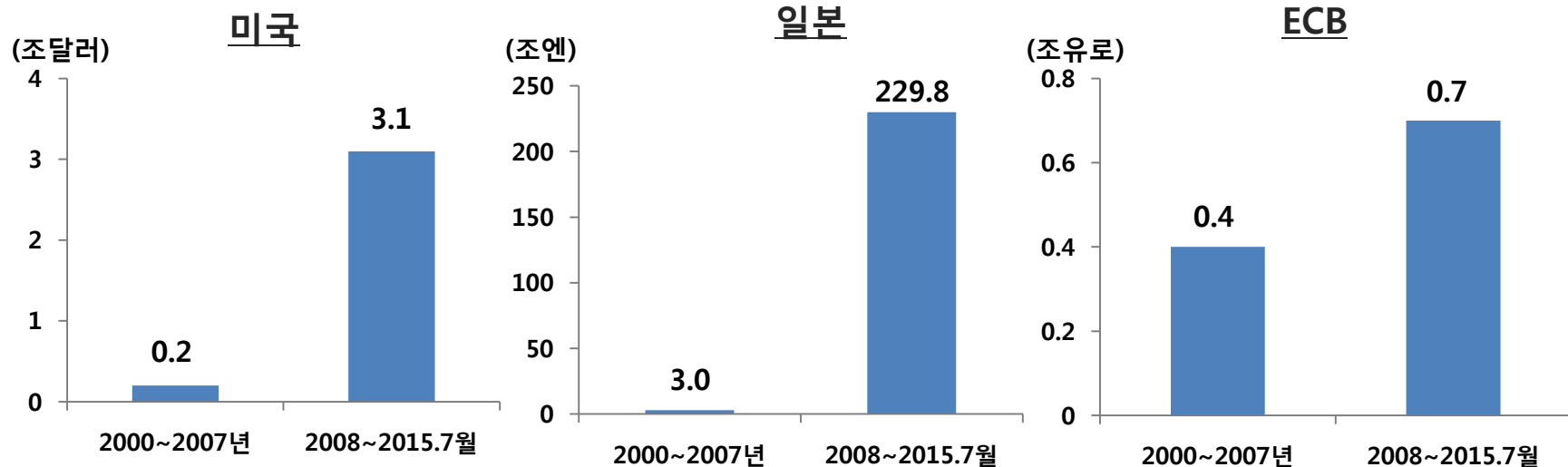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

■ 양적완화 정책 (QE : Quantitative Easing)으로 넘쳐나는 국제 유동성

- ▶ 미국 : 2008~2014년 중 국채 및 모기지증권 4조 달러 매입
- ▶ 일본 : 무기한 국채매입, 연간 80조엔
- ▶ 유로지역 : 2014.3~2016.9 국채, ABS, 커버드본드 매월 600억 유로 매입

본원통화 증가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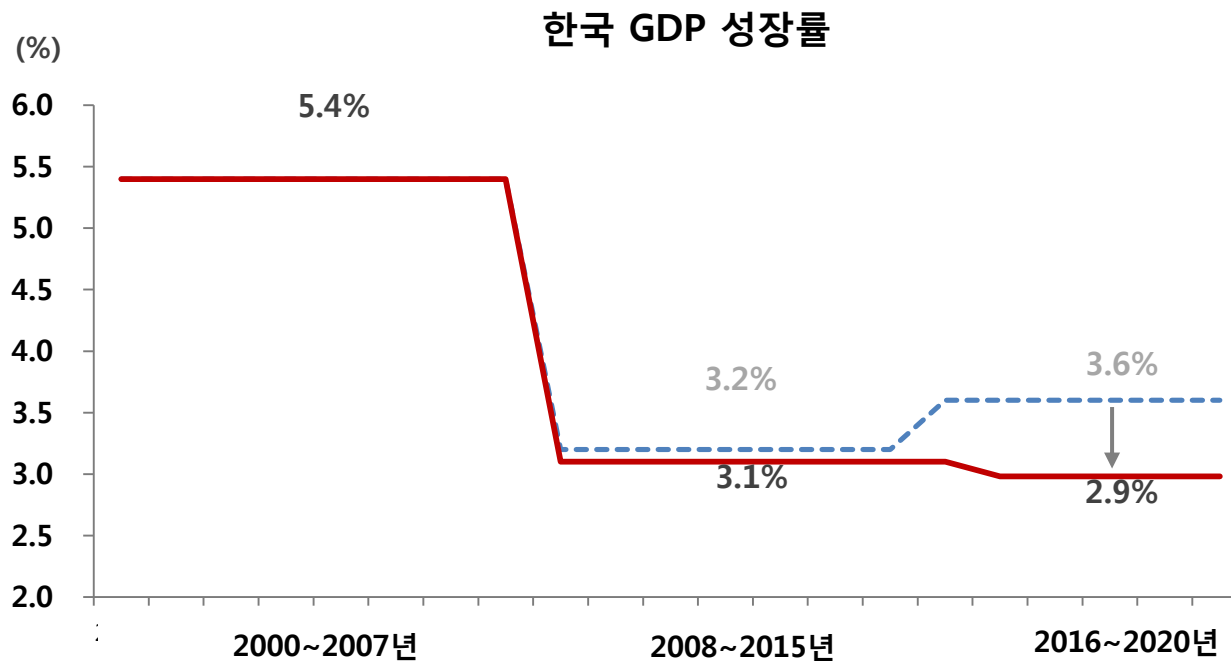


한 국 경 제

■ 2015~2020년중 2%대 성장 전망

▶ 2015년, 2010년 이후 취업자수 증가율은 최저치

⇒ 1.4(2010)→1.7(2011) →1.8(2012) →1.6(2013) →2.1(2014) →1.3(201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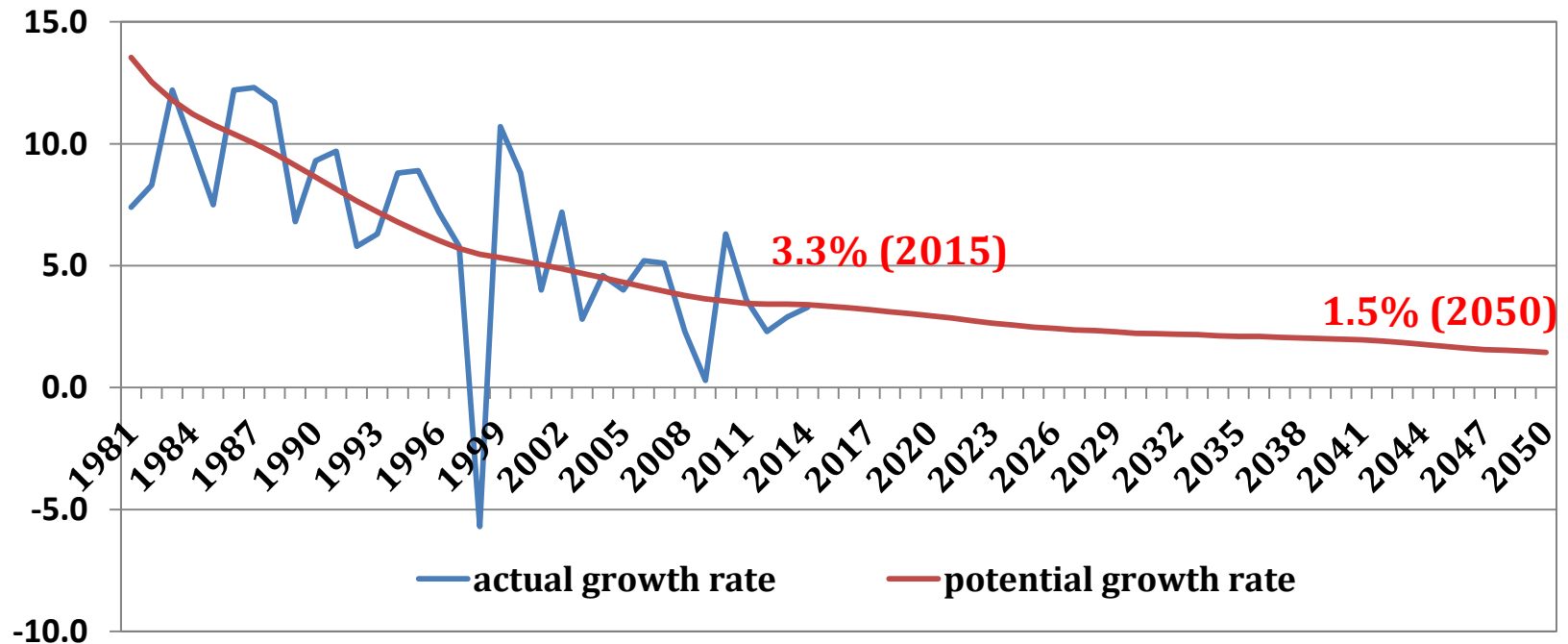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IMF

■ 잠재성장률 급속한 둔화

- ▶ 2050년 1.5%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

한국경제 잠재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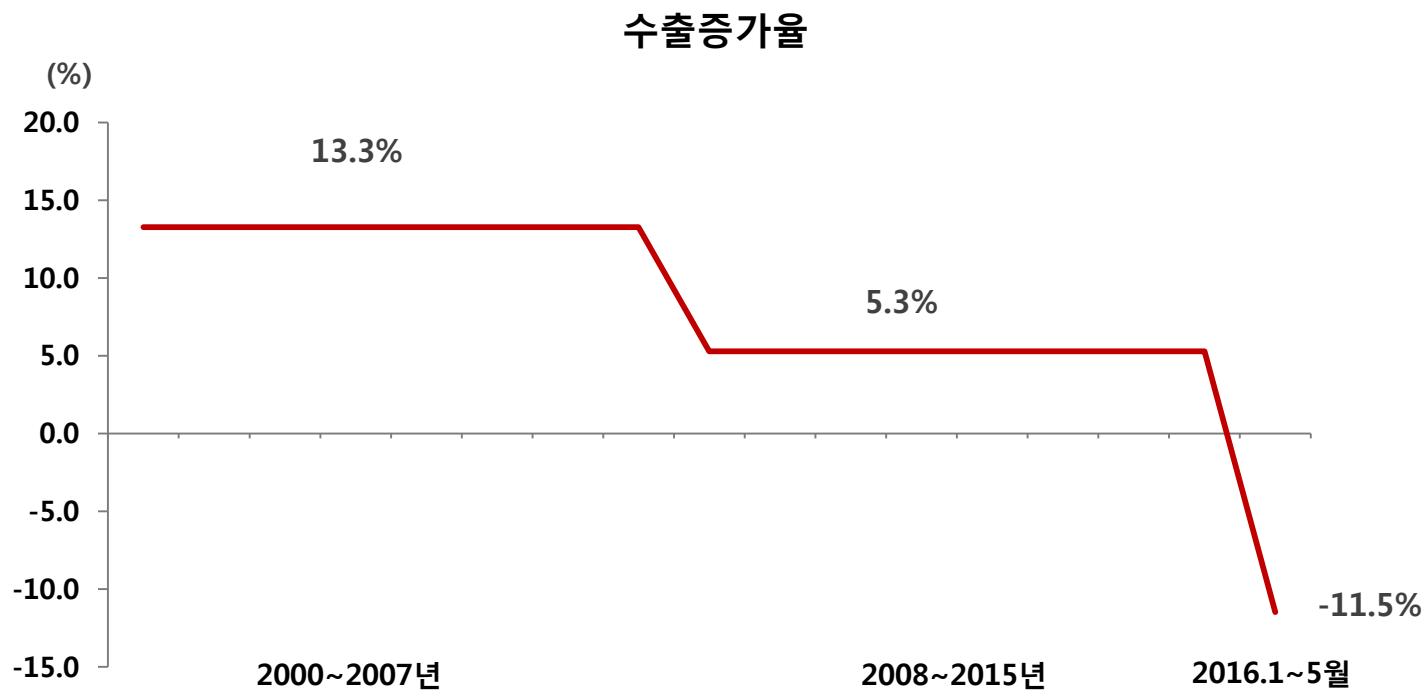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: 한국경제연구원

■ 수출의존도 (수출액/명목GDP, 2015년) : 38.2%

- ▶ 주요 수출국 : 중국(26.0%), 미국(13.3%), EU(9.1%)
- ▶ 주요 수출품목 : 반도체, 정보통신기기, 자동차, 철강, 기계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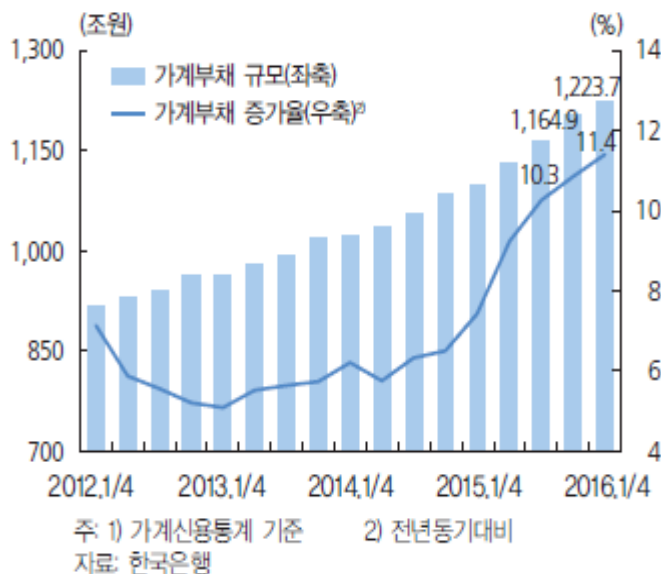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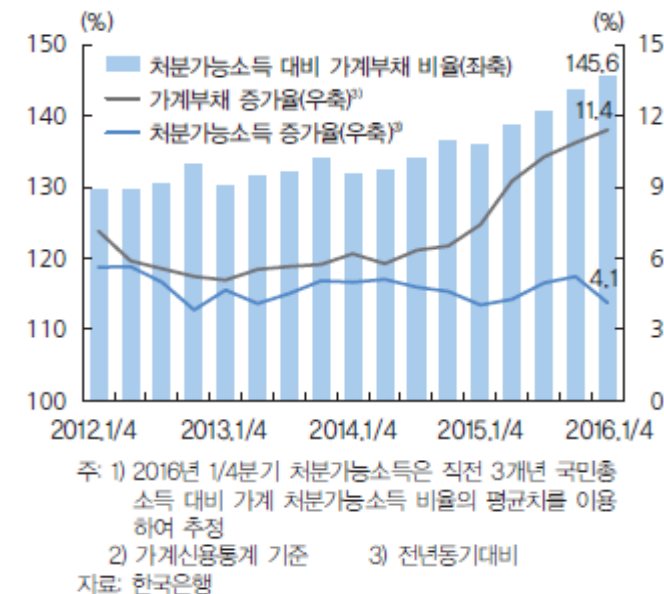
■ 가계부채 누적이 소비제약 요인

- ▶ LTV(담보인정비율)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 규제 완화 →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폭 증가 → 가계 재무건전성 저하 → 소비증가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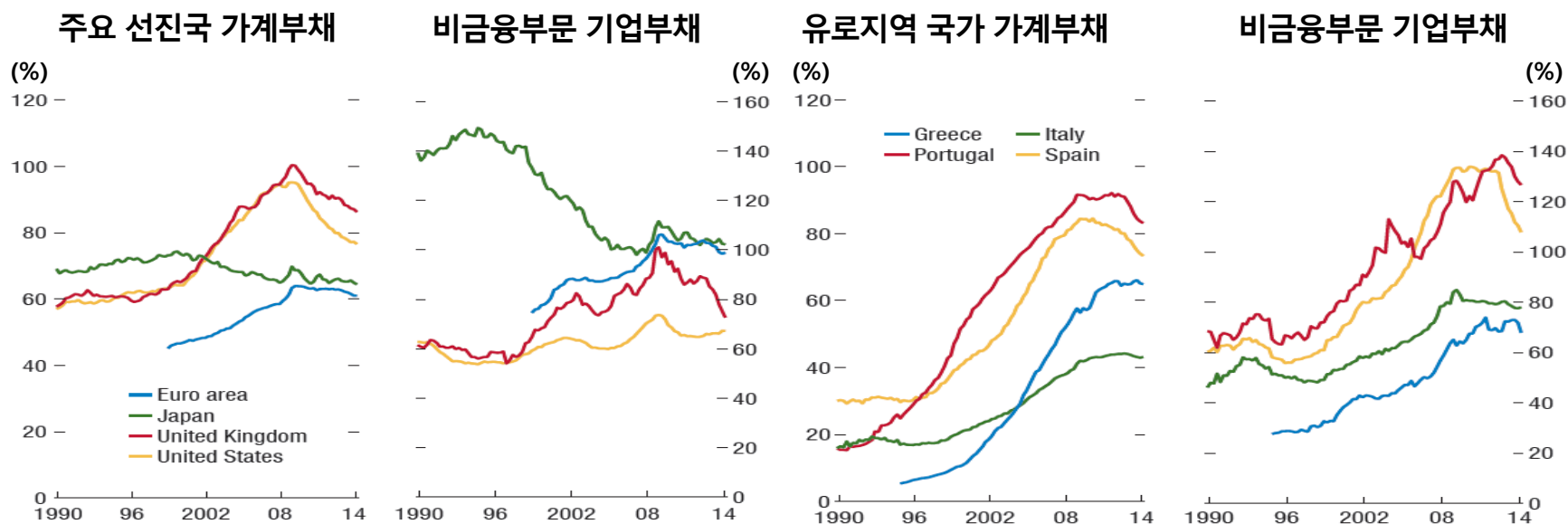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-2〉 가계부채¹⁾ 규모



〈그림 1-5〉 처분가능소득¹⁾ 대비 가계부채²⁾ 비율



■ 미국·영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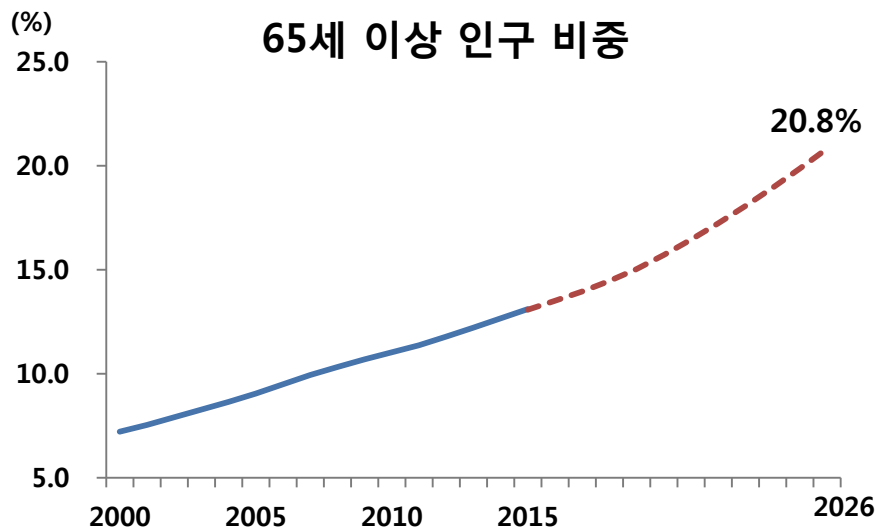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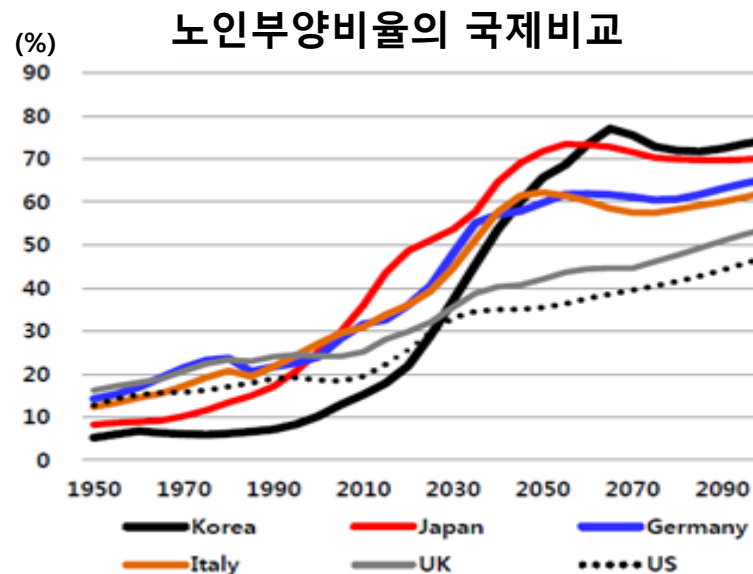
■ 65세 이상 인구 : 10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, 5명 중 1명(20.8%) → 25년 후 10명중 3명(32.3%) (중위연령: 31.8세(2000년)→40.8세(2015년)→52.6세(2040년))

■ 급속한 고령화의 파급효과

- ▶ 생산가능인구 축소
- ▶ 소비 증가 제약
- ▶ 사회보장 부담 급증



자료: 통계청



주: 노인부양비율 = 65세 이상 인구/15-64세 인구

자료: KD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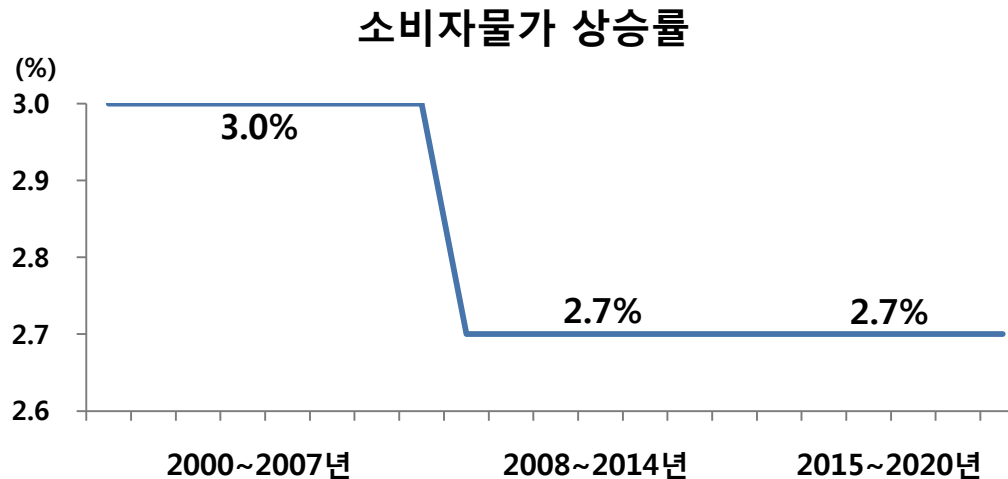
■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음

▶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: 2.5~3.5%

▶ 디플레이션이란? : 물가하락이 경기위축을 초래하여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
자기실현적 악순환이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함

※ 자기실현적 악순환 : 수요 부진 → 물가 하락 → 실질부채상환부담 증가 → 가계소비 감소 → 기업이윤
축소 및 투자 감소 → 은행 부실자산 증가 → 실물경제 위축 → 물가 하락이 반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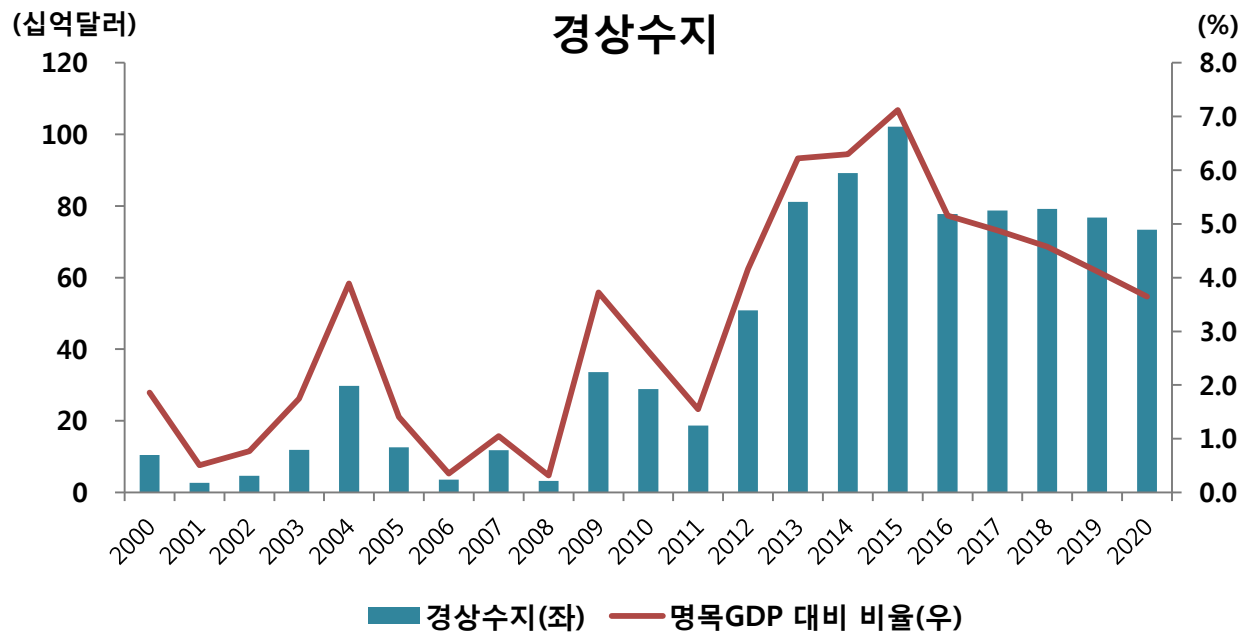
▶ 일본 : 90년대 중반 이후 저물가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화정책 대응 실패로
장기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초래 (2000~2014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**-0.01%**)



자료: 한국은행, IMF

■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

- ▶ 품질 경쟁력
- ▶ 최근은 불황형 흑자, 원자재 가격 급락도 일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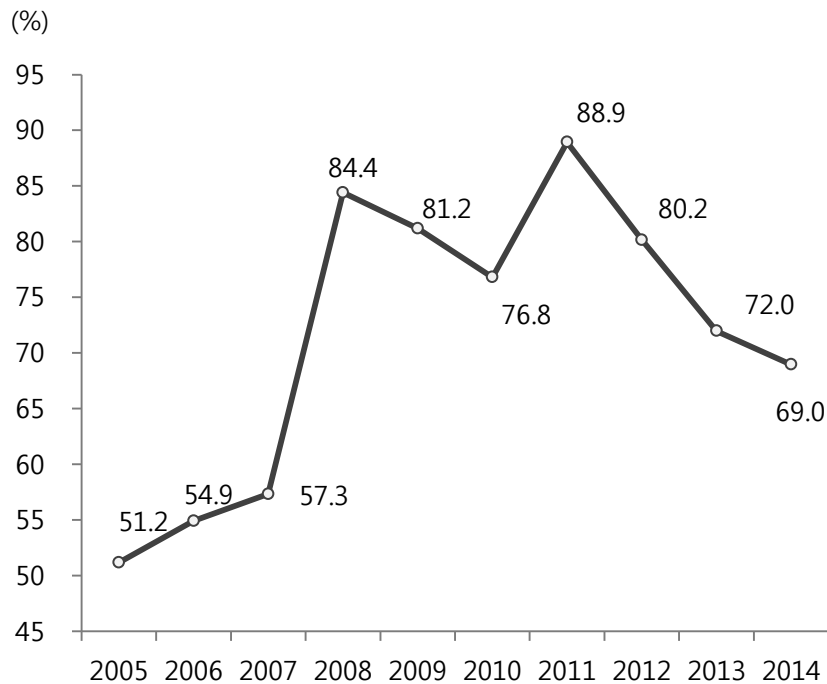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

동남권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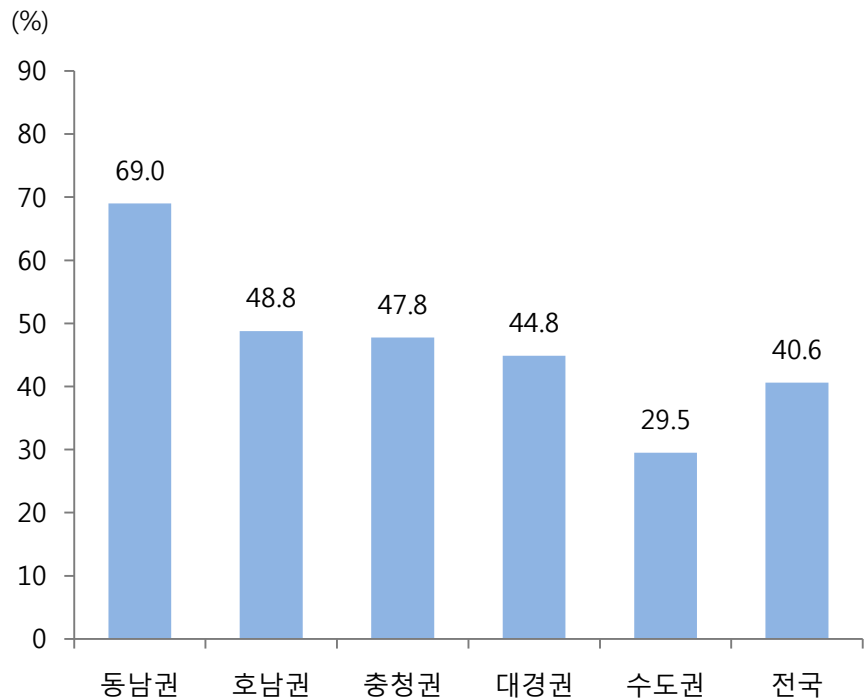
1 높은 대외의존도

<동남권 수출의존도 추이>



주 : 수출의존도 = 수출액 / 명목GRDP
 자료 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<광역경제권별 수출의존도 현황(2014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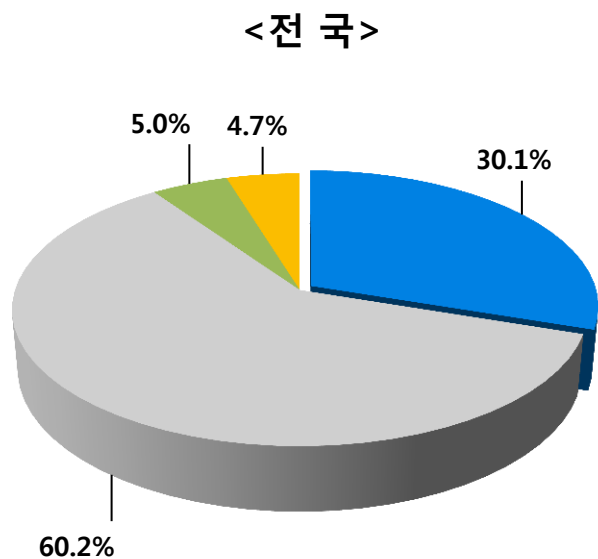
주 : 수출의존도 = 수출액 / 명목GRDP
 자료 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■ 동남권 수출비중(2015년) : 10대신흥국 13.9%, 중국 11.3%, 유로 7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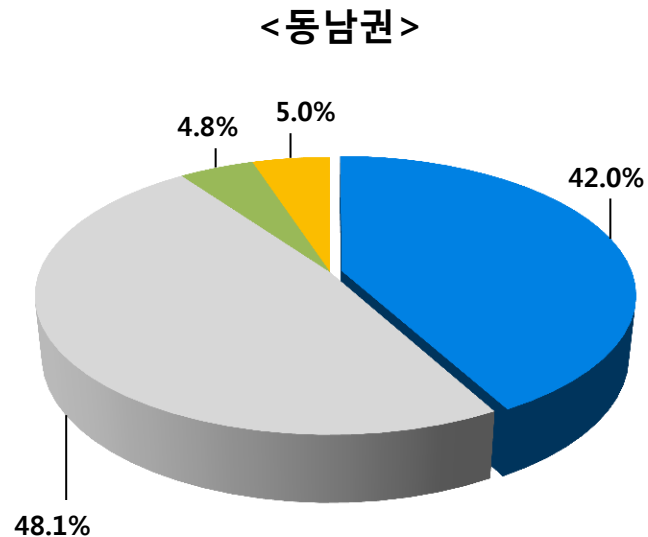


2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

■ 동남권 산업구조



■ 제조업
■ 서비스업
■ 건설업
■ 기타



주 :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(2014)
자료 : 통계청

■ 동남권 주력산업

- ▶ 동남권 7대 제조업, 전체 80.2% 비중 차지
- ▶ 자동차(18.2%), 조선(17.4%), 화학(11.5%), 기계장비(11.2%), 금속(10.0%), 철강(6.4%), 석유정제(5.5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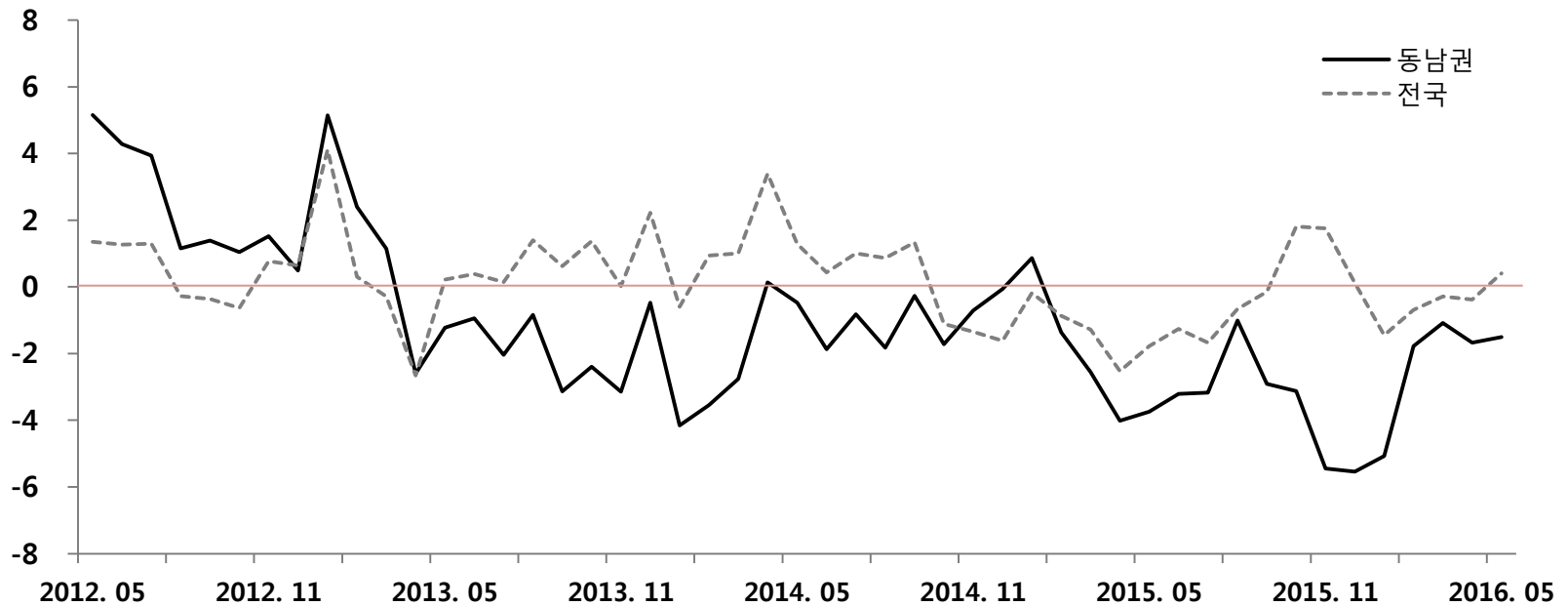
<지역별 주력 제조업 현황>
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
부산	자동차	기계장비	금속	철강	조선
울산	자동차	화학	조선	석유정제	철강
경남	조선	기계장비	금속	자동차	철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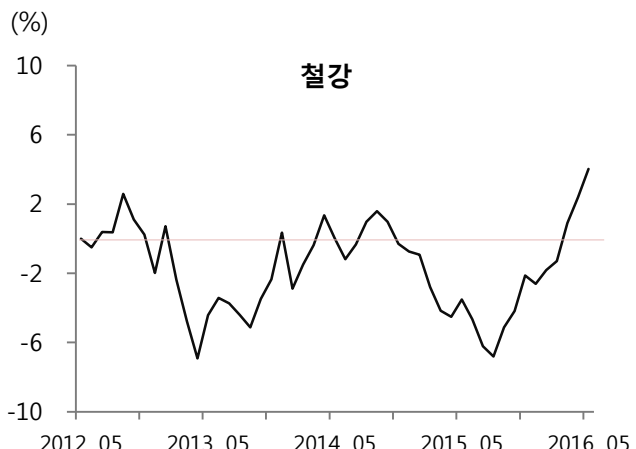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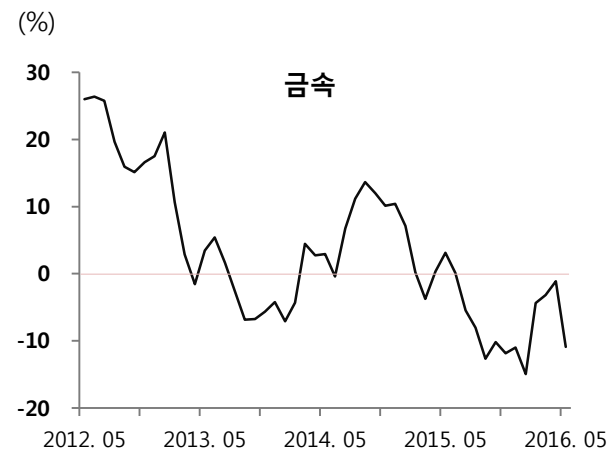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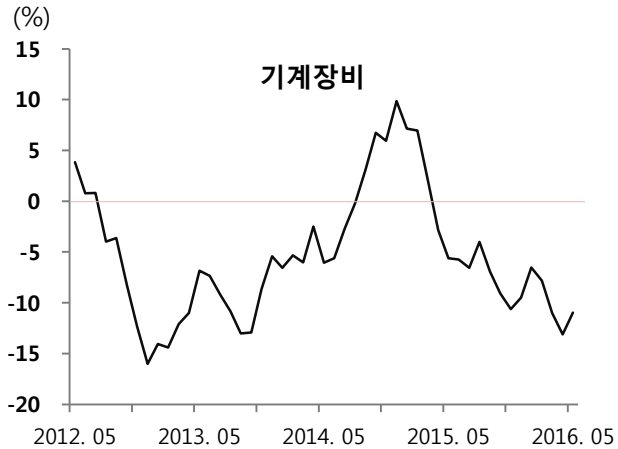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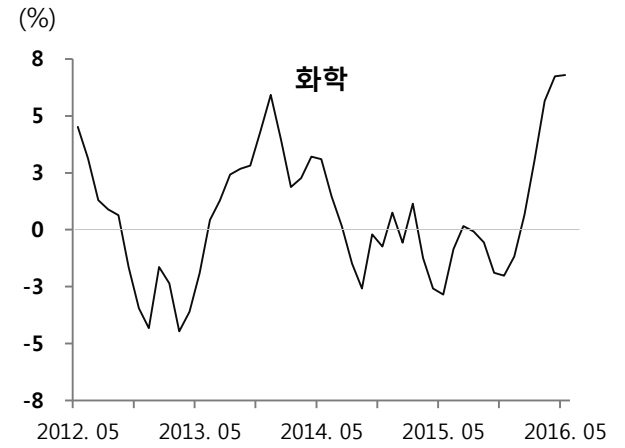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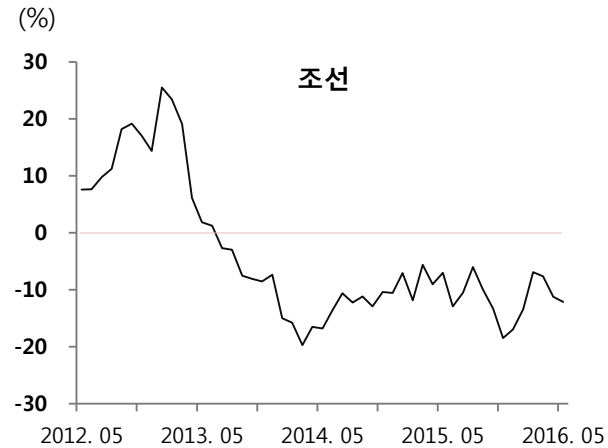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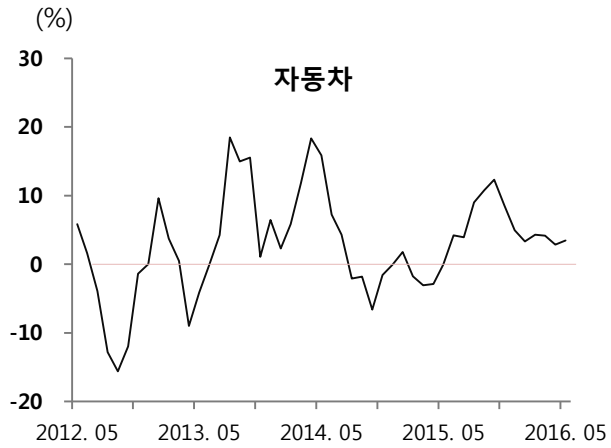
주 :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(2014), 표준산업분류 1차금속은 철강, 운송장비는 조선으로 대표
 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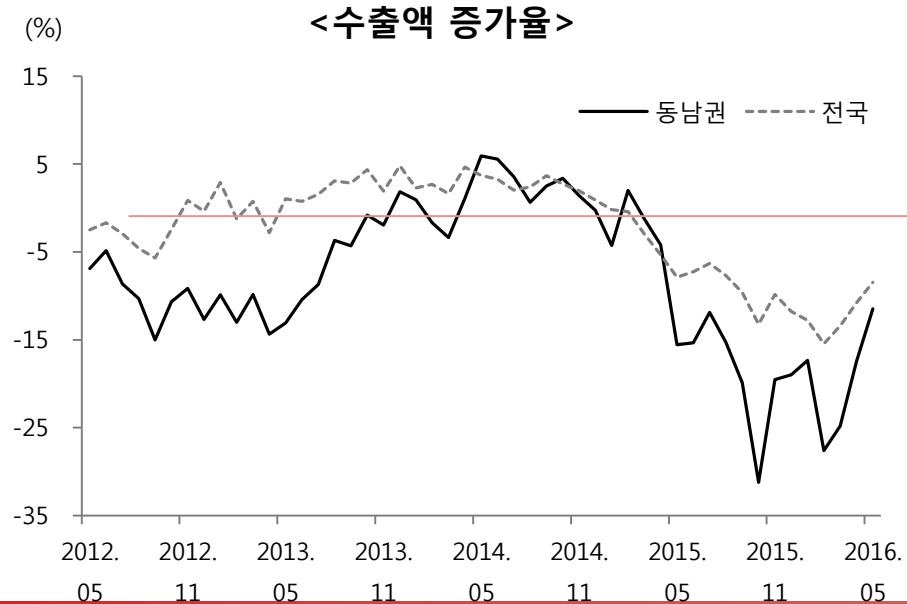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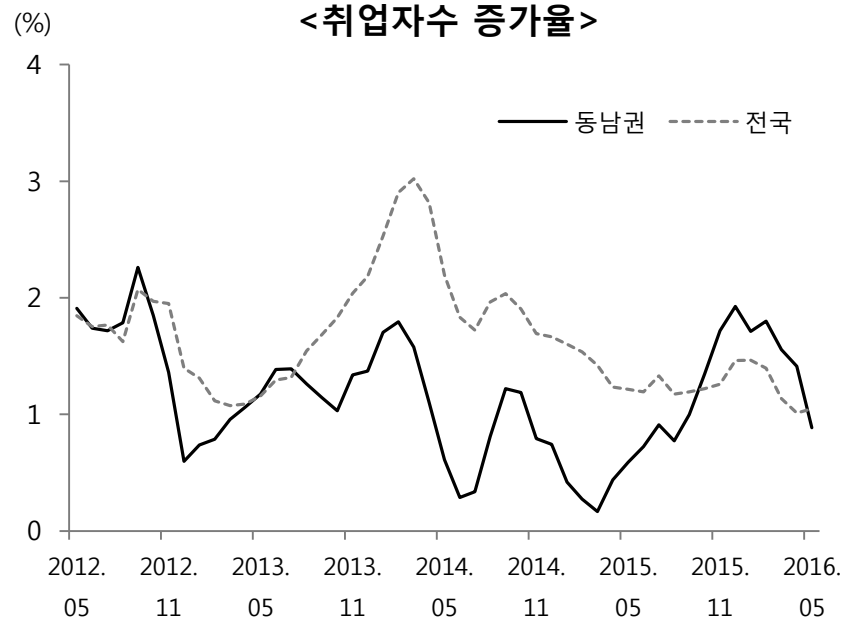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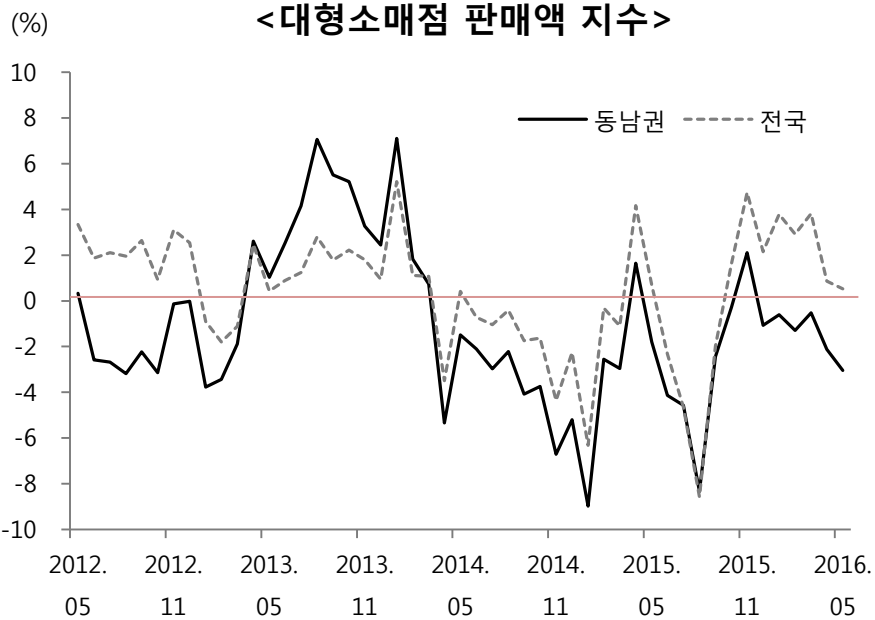
3 지역경제 동향

<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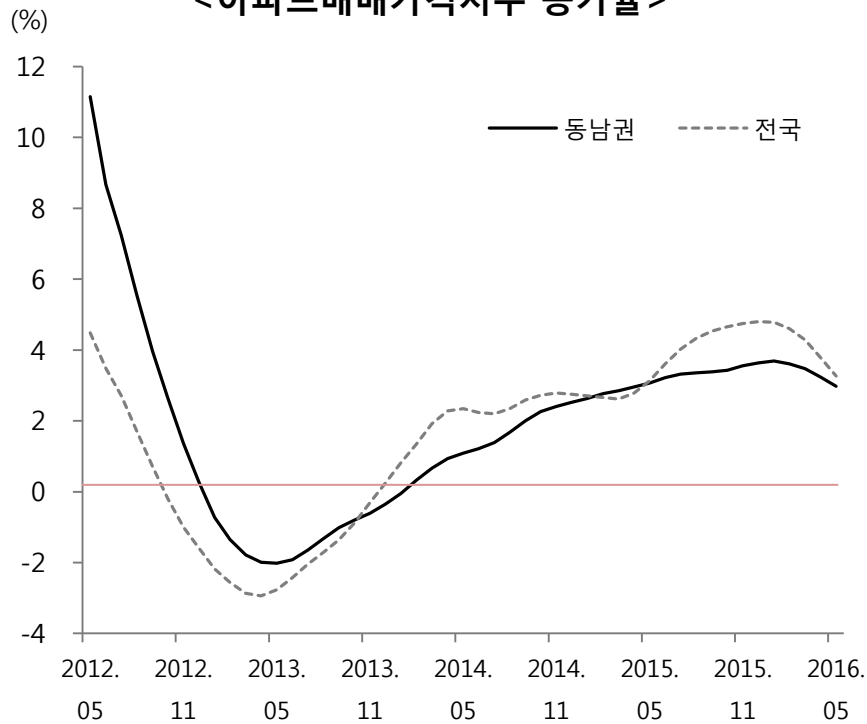


주 : 전년동월대비 증감률, 3개월 이동평균
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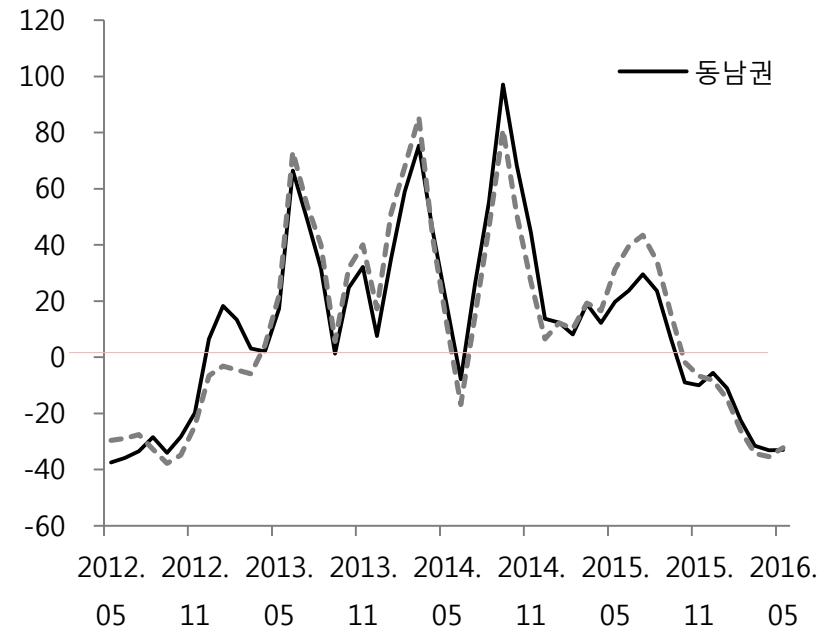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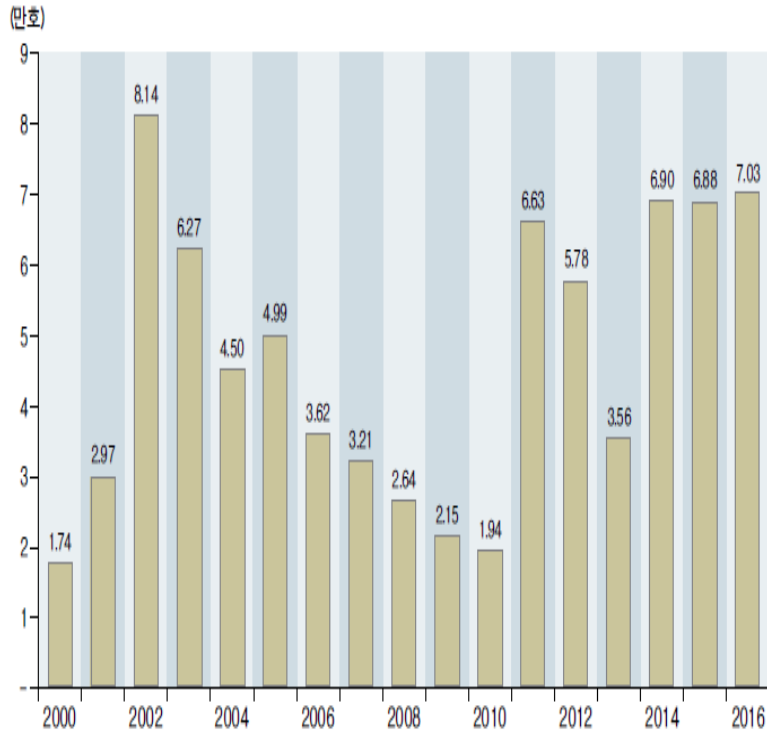
<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>



<아파트매매거래량 증가율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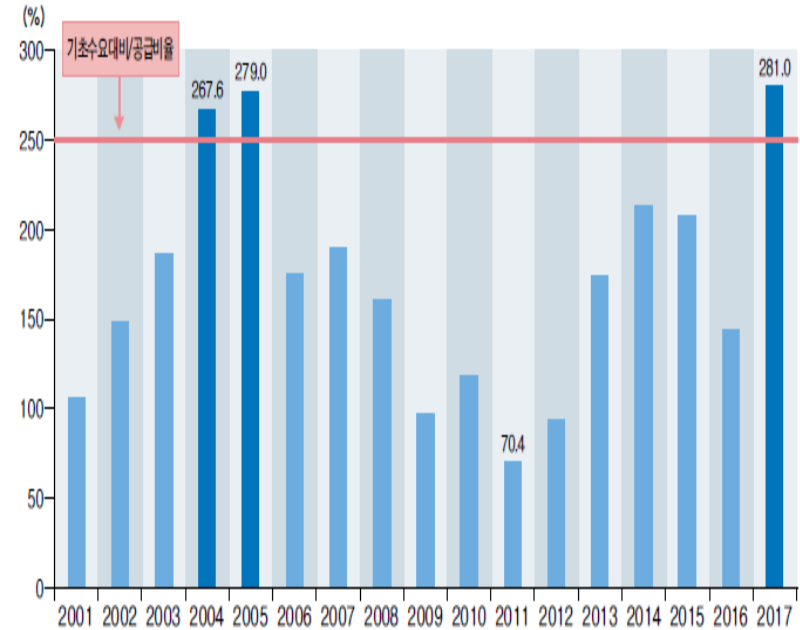
동남권 아파트 분양물량¹⁾ 추이



주 : 1) 2016년은 분양예정물량 포함

자료 : 부동산 114

동남권 아파트시장 기초수요대비 공급비율¹⁾²⁾



주 : 1) 공급은 아파트 입주가능물량

2) 기초수요는 가구수증가와 주택별실수 합계를 주택소유에서 아파트소유가 차지하는 비율 (57%, 2012~14년 평균)를 계산하여 추정

자료 : 부동산 114,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BNK금융경영연구소 추정

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

국내 5대 제조업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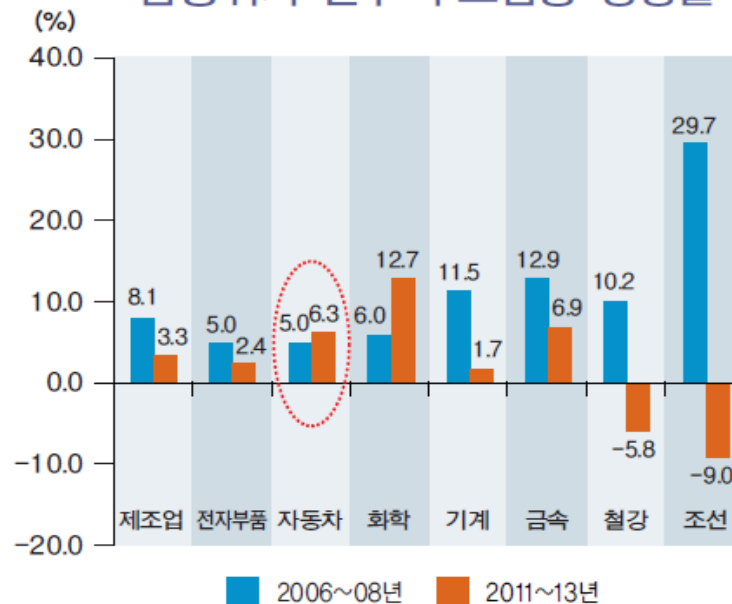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
1999년	전자 부품 (20.2)	자동차 (9.2)	화학 (8.2)	철강 (6.6)	기계 (6.0)
2013년	전자 부품 (24.4)	자동차 (11.4)	화학 (9.0)	기계 (7.4)	금속 (5.8)

주 : 1) 부가가치 기준

2) ()내는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

자료 : 통계청(광업제조업 조사)

금융위기 전후 주요업종 성장률



주 : 부가가치 기준

자료 : 통계청(광업제조업 조사)

■ 동남권, 전국 자동차산업에서 30% 비중 차지

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¹⁾

(10억원, 명, 개, %)

구분 ²⁾	부가가치	종사자수	사업체수
자동차	17,215 (31.6)	93,374 (29.1)	1,265 (30.0)
■ 완성차	10,986 (37.4)	36,452 (39.7)	38 (16.9)
■ 부품업	6,229 (24.7)	56,922 (24.8)	1,227 (30.7)

주 : 1) 2013년 광업제조업조사 기준

2) ()내는 전국대비 비중

자료 : 통계청

국내 자동차업계 생산공장 현황¹⁾²⁾

업체	국내 공장 위치		연간 생산능력(대)	생산 차종
현대 자동차 [서울]	울산공장	울산광역시 북구	1,542,000	엑센트, 벨로스터, 싼타페, 아반떼, 제네시스, 에쿠스 등
	아산공장	충청남도 아산시	300,000	쏘나타, 그랜저
	전주공장	전라북도 완주군	100,000	버스, 트럭
기아 자동차 [서울]	소하리공장	경기도 광명시	350,000	프라이드, K9, 카니발
	화성공장	경기도 화성시	600,000	K3, K5, K7, 쏘렌토, 모하비
	광주공장	광주광역시 서구	620,000	쏘울, 스포티지, 봉고트럭, 버스, 군용차
한국 지엠 [인천]	부평공장	인천광역시 부평구	440,000	아베오, 캡티바, 알페온, 말리부, 트랙스
	군산공장	전라북도 군산시	260,000	크루즈, 올란도
	창원공장	경상남도 창원시	210,000	스파크, 라보, 다마스
	보령공장	충청남도 보령시	-	트랜스미션, 엔진소재
쌍용 [경기]	평택공장	경기도 평택시	240,000	코란도, 렉스턴, 체어맨
	창원공장	경상남도 창원시	-	엔진
르노삼성 [부산]	부산공장	부산광역시 강서구	300,000	SM3, SM5, SM7, QM3, QM7
자일 대우버스 [경기]	울산공장	울산광역시 울주군	7,000	버스
	동래공장	부산광역시 금정구	2,000	
타타대우 [군산]	군산공장	전라북도 군산시	13,000	트럭 (PRIMA, NOVUS)

주 : 1) []는 본사 또는 한국본사 입지지역

2) 파란색은 동남권 생산공장

자료 : 각사 홈페이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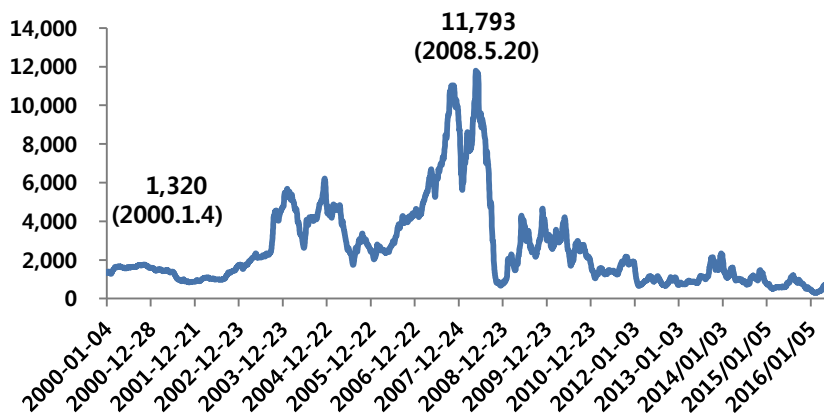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 증가세 큰 폭으로 둔화

- ▶ 2004~08년중 연평균 7.9% → 2011~15년중 3.9%
- ▶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크게 늘어난 선박발주로 전세계 선박량 크게 증가

■ 주요 해운시장 지표 크게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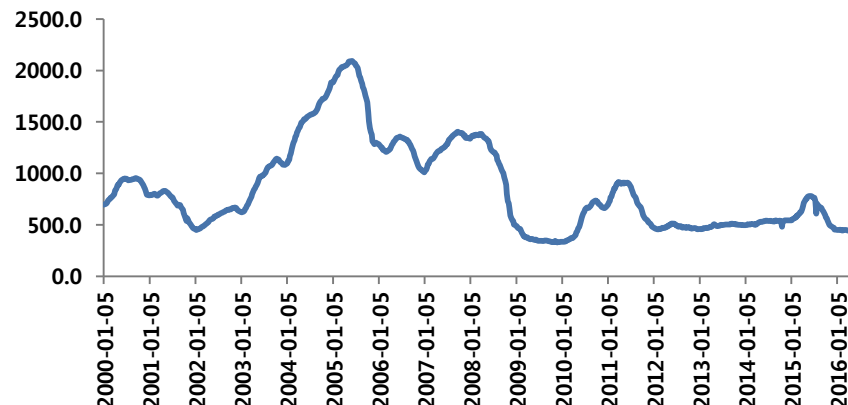
- ▶ BDI : 2014년 2월 이후 손익분기점(2000p)을 하회 · 4월 607.5p
- ▶ HRCI : 2005년 6월 8일 정점(2092p), 2012년 이후 500p 내외 횡보

BDI(벌크선운임지수) 추이



자료 : Clarkso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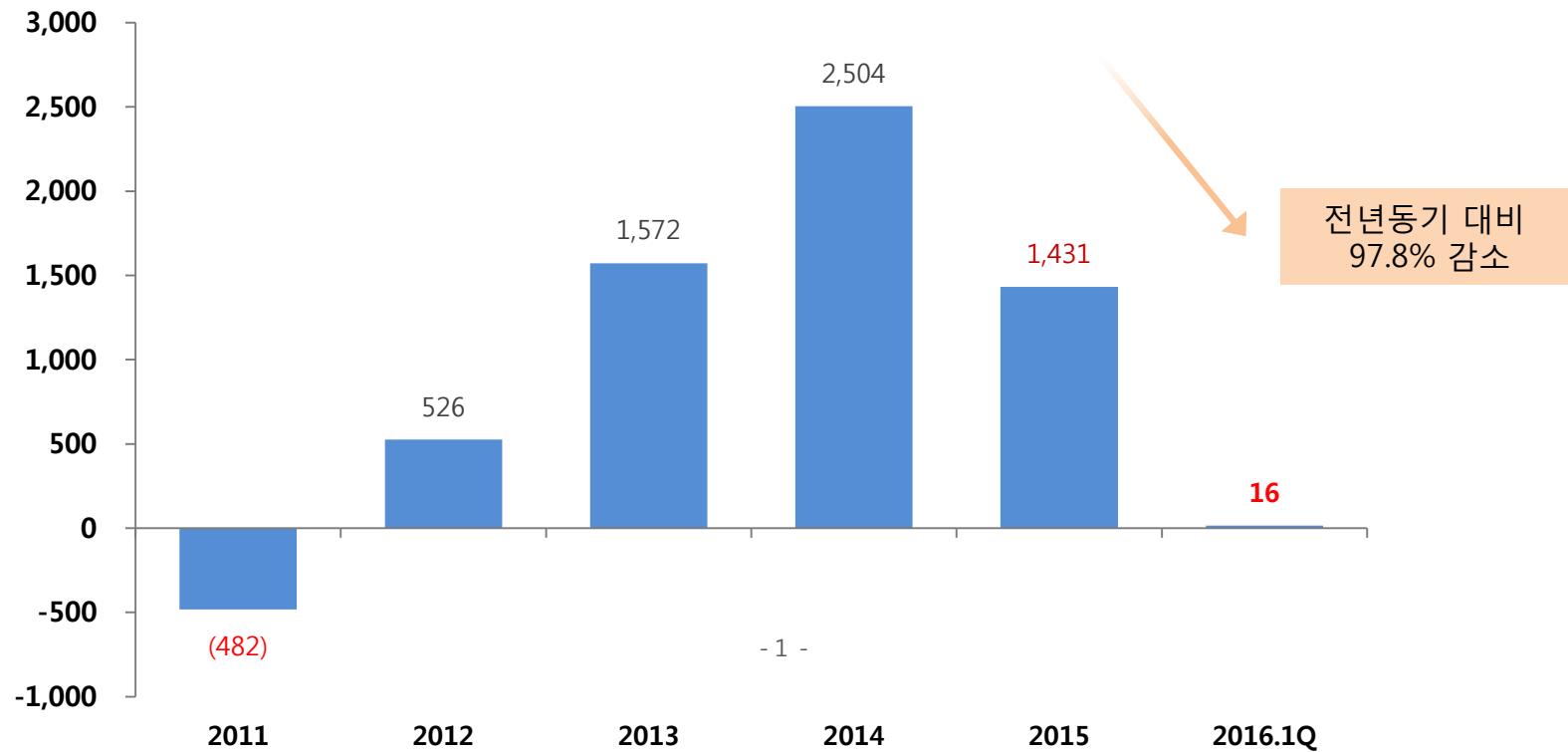
HRCI(컨테이너용선료지수) 추이



자료 : Clarksons

MAERSK LINE 영업이익

(백만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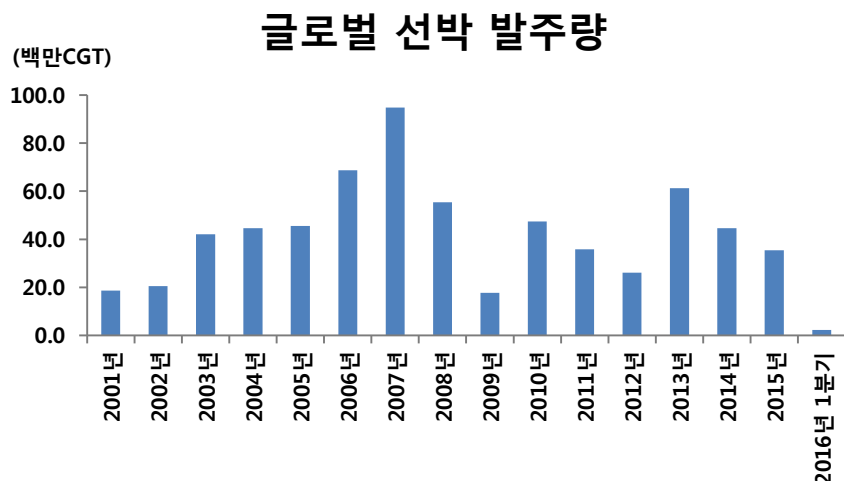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■ 해운시황 침체, 저유가 영향으로 전세계 선박 및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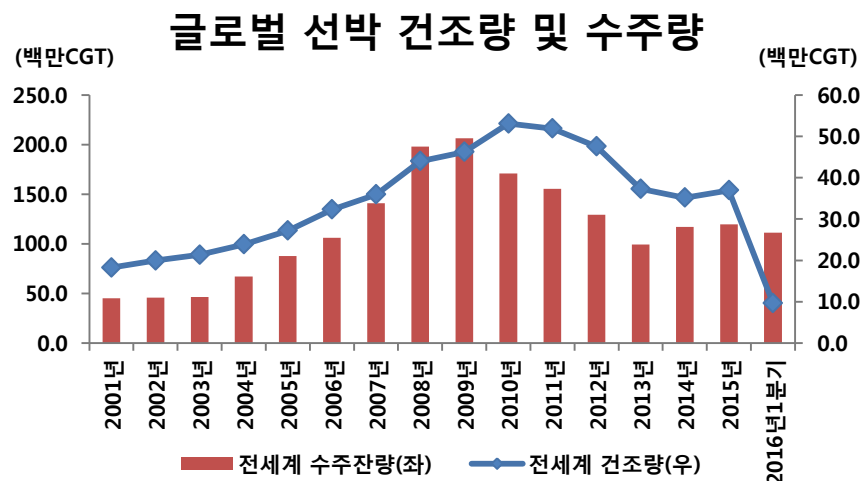
- ▶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으로 2013년 발주 정점(6,128만CGT)
- ▶ 2014~15년중 연평균 24% 감소. 금년 1분기(발주량 232만)는 전년동기대비 71% 급감

■ 수주잔량, 최대치의 절반수준까지 축소

- ▶ 2009년 2억CGT → 2016년 ¼분기 1억1천만CGT



자료 : Clarkson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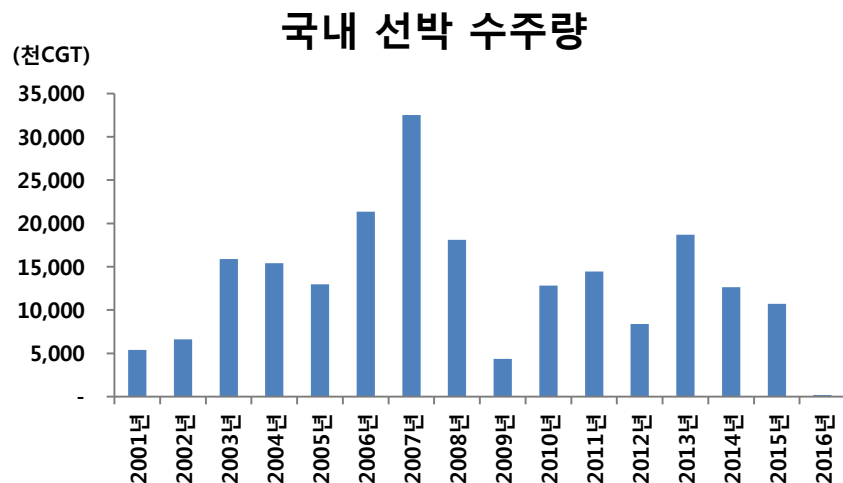
자료 : Clarksons

■ 수주량 2014~15년중 연평균 27.3% 감소, 2016년 ¼분기 94.1%(전년동기비)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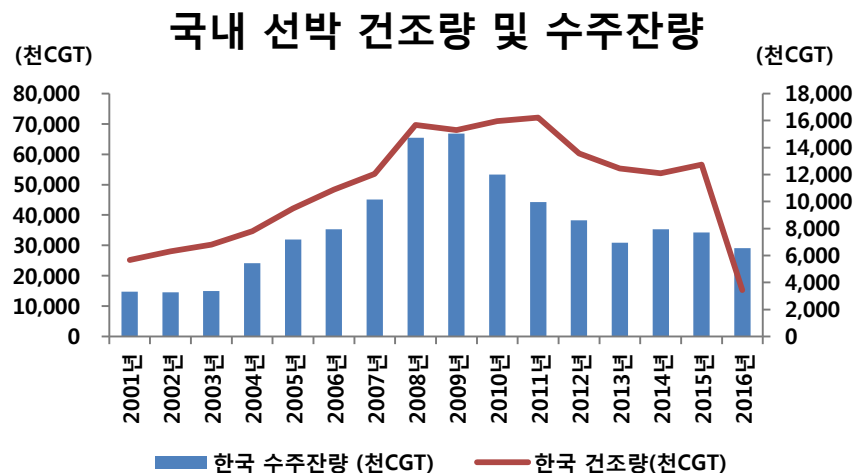
- ▶ 2014~15년중 상선 수주량은 연평균 23.0%, 해양플랜트 수주량은 연평균 71.1% 감소
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일감이 남아

- ▶ 2016년 ¼분기 국내 조선업 수주잔량을 고려할 때 1.6~1.9년치 일감이 남은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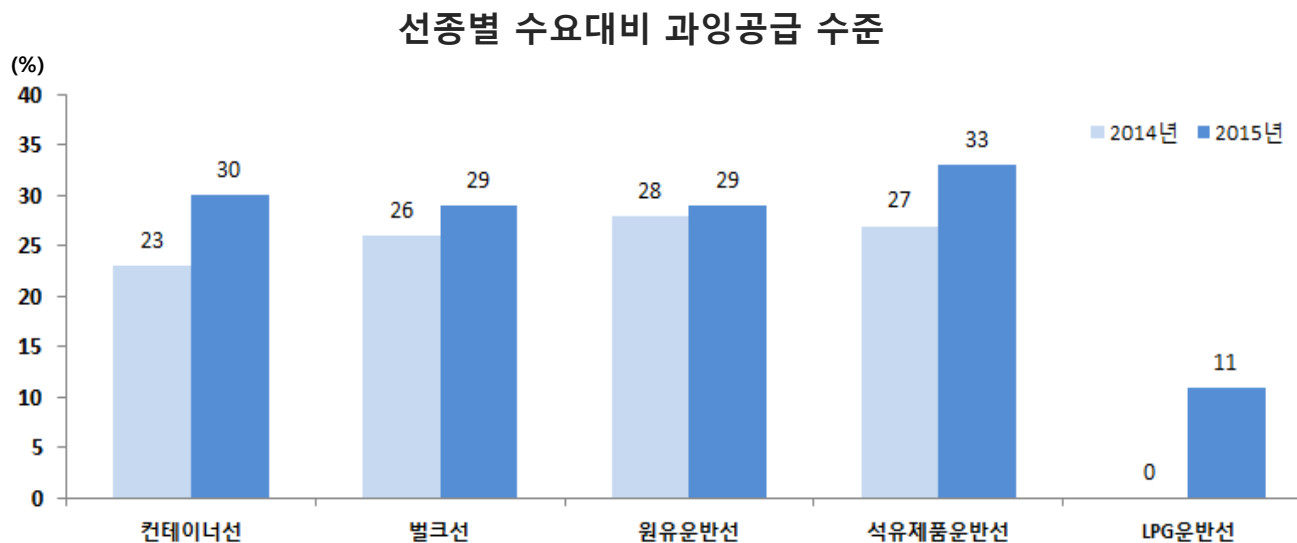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Clarksons



자료 : Clarksons

- ▶ 유가전망(2016.4월 발표)
World Bank: 41달러('16년)→50달러('17년), 글로벌 10개 IB: 42달러('16년)→50달러('17년)
- ▶ 해상물동량 대비 선박량 과잉공급 상황(Danish Ship Finance, 2015년 10월 발표)
25%(2014년) → 30%(2015년) *2018년까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


자료 : Danish Ship Finance

감 사 합 니 다